

서울혁신파크의 기억

Memories of Seoul Innovation Park

인터뷰 기록집



PAPERBAG ARCHIVES

서울혁신파크의 기억

Memories of Seoul Innovation Park

Prologue	혁신은 퇴거해도 기억은 남아있다	04
Map Archive	서울혁신파크 장소의 기억	06
Zoom in Story	혁신의 일상성, 파크의 기억들	08
전민주	혁신파크를 기억하는 방법	10
한선경	일상의 아름다움으로 채운 혁신의 공간	26
유선	혁신의 감각적인 차이	38
이자민	처음 만난 사회적기업과 혁신파크	48
조아라	다양성을 존중한 커뮤니티의 기억	58
나영	모두를 위한 공원을 위하여	68
배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이유	80
Zoom out Issue	혁신파크의 공공성	94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에 대한 회고 구은경, 이명희, 박미정	96
	서울혁신파크 생태탐방의 기록 최영금	114
Epilogue	당신의 파크는 어디입니까	126
Timeline	2012 - 2024 서울혁신파크의 역사	134

Prologue

혁신은 퇴거해도 기억은 남아있다

2023년 12월, '전대미문'의 사회혁신 프로젝트인 서울혁신파크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의 시유지 중 가장 넓은 규모인 109,727㎡, 약 3만 3천평의 부지에 청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 등 600여개의 입주단체와 공원, 운동장, 공유텃밭,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는 녹지를 품고 있는 보기드문 공유지 公有地 였습니다. 반면, 서울혁신파크가 사라지는 과정은 세계적인 재난과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재적인 한계로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단체가 퇴거하고 난 후 건물들은 폐쇄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마지막 입주단체인 카페썸이 파크를 지키며 시민들과 함께 상업적 개발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서울혁신파크의 역사가 축적돼온 장소들은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퍼백 아카이브는 지난 3개월 동안 파크 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울혁신파크와 다양하게 연결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나갔습니다. 이 기록집에는 원시림 같은 국립보건원 부지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자리를 잡은 2012년부터 혁신파크의 소멸이 진행 중인 2024년의 이야기까지 약 12여년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Zoom in Story 는 혁신파크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개인의 구술기록이며, 개인의 이야기는 서울혁신파크의 생성과 성장, 소멸의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Zoom out Issue** 는 서울혁신파크의 제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파크의 공공성을 새롭게 바라보고 상상해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집의 앞 뒤에는 기억을 지도와 맵핑하고 타임라인과 연결시켜 파편화되기 쉬운 개인적 경험에 역사성을 부여한 기억의 지도와 새로운 타임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흩어진 기억들과 기록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쉽지 않았고, 무수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기꺼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셨기에 기록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록물이 서울혁신파크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혁신파크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페이퍼백 아카이브 허나운

서울혁신파크 장소의 기억



서울혁신파크를 기억하는 방법

“2021년 혁신파크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나가는 기념식을 했어요. 11월 가을이었는데,
파크 건물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도는 거죠.
탑돌이처럼. 그때 단풍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게 마치 의례를 치루는 것처럼 떠나거나
남을 사람들이 함께 혁신파크 전체를
다 둘러보며 거닐었어요”

전민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모두 함께 해온 활동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일했으며, 2018년부터는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당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처음으로 입주하였고, 2021년 11월 서울시의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서울혁신파크를 떠났다.



서울혁신파크의 단풍, 2014. 11. 28(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사회혁신파크의 프리퀼

2012년 9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입주

우리센터는 2012년 9월 개관했어요. 여기가 시민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흐름을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미래에는 더욱 새로운 시민을 마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니까 마을공동체부터 입주한다고도 했어요. 우리는 이미 마포구 성산동 주민센터의 꼭대기 빈공간에 모여서 사업도 구상 중이었고, 8월부터는 입주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녹번동 국립보건원 건물이고 ‘시민청’이라 불리게 될지 모르는 공간인데, 그곳에 우리가 첫 번째로 입주하게 되는 것

이고, 우리가 입주자로 첫 획을 긋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름이 '사회혁신
파크'가 되었어요.

파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전체 공간을 둘러
봤어요. 4층 짜리 건물이었는데 가능하다면 이 건물 전체가 공동체를 지
원하는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기능은 다 설계되어 있
더라고요. 2014년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오고 2층과 1층을
쓰게 되었죠. 곧 3층도 결국엔 이모작지원센터가 쓰게 되는 걸로 바뀌었
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머물수 없는 공간이구나 했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관심사
였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총출동했어요. (개관식날) 길놀이
를 파크 바깥에서부터 몰아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개관식 할 때
1층, 2층은 막아두고 우리센터가 사용하는 3층만 오픈했어요. 당시 사회
혁신국장이 개관 브리핑하고 기자들도 많이 왔었죠.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면 그 공간 조성을 담당할 공무원이 건축을 전공한 프랑스 유학파였는데
개관할 때 보니까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거
의 없었고 내부는 칸을 막아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막아둔
것이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창문을 두어서 옆방의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돈이 남는다면서 보관장, 수납장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 사람 너무 신기하다 건축 전공했다는데 공간의 구조와 활용
측면보다 수납장에만 너무 관심을 둔 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사무실 공간이 약 100평 즈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
데 거길 가득 메운 사람들, 기자들이 가득 들어온 개관식날, 그때 함께 있

* 2012년 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서울시는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였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는 2012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운영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11월 운영
주체를 조계사로 변경했다가 2022년 12월 위탁계약 자체를 종료하였다.

던 동료들이 개관식 한달 전부터 9월 개관하던 날까지 매일 매일 청소하
고 쓸고 닦고 이랬던 게 기억에 남아요.

4층 짜리 건물 3층에 우리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건물이지만 파크에 입
주해 있던 단체는 민주노총이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회의를 할
때는 민주노총과 우리를 불러서 했어요. 우리 건물은 상당히 오랫동안 안
씻기 때문에 수도관 정화가 잘 안되었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
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우리가 들어가서 쓰니까 보이차 같은 녹물이
팔팔, 노폐물이 한동안 쏟아지더라고요. 또 관리실에서 다른 층은 가지 마
라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죠. 3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실험 동
물들을 이동시켰던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가 국립보건원
실험실이었기 때문에 동물의 한이 많다 밤에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있었
고, 당시 우리는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무서워했어요. 그
래서 개관식때 제를 지내자 무슨 제사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곳
에 살던 생명체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제사라는 틀에 박힌 의
례가 아니라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터주한테 인사한다라는 의미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제사를 지냈죠.** 2013년에 청년허브가 개관했
는데 입주해서 넘어지고 다리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청년허
브 친구들이 마을은 어떻냐고 물어서 우리는 괜찮다고 했더니 마을센터는
터주에게 제사를 지내고 들어와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며 잘했다고 하
더라고요.(웃음)

처음에는 여기가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림이었어요. 국립보건원이
관리를 잘 했나보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관리

** 2015년 6월 26일 서울혁신파크 공식적인 개관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시절 실험으로 죽어간 동물
들의 넋을 위로하는 고사(告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혁신파크의 봄, 2018. 4. 4 촬영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중앙 공원 가운데 큰 벚꽃나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혁신파크 정문을 들어오면 그 벚나무가 맞이해 주는 것 같아요” 벚꽃 필 무렵 많은 동료들이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친구들과 약속 잡아 산책하며 거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인가 그 나무를 베었어요. 파크 정비사업으로 나무를 베었다는데 사전에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 베어버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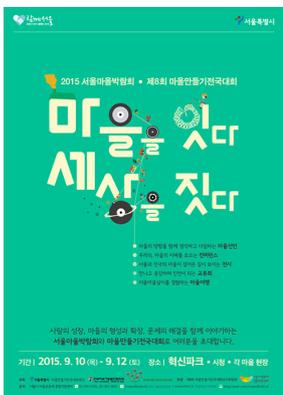


2015년 가을, 서울혁신파크의 모습(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오래된 것들을 재생하는 과정, 현실은 공사판

2012년엔 남은 빈공간들이 많았어요. 현재의 미래청은 2013년 개관을 앞둔 서울청년허브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맞이하기 위해 2012년 에도 공사하느라 어수선했고, 가장 뒤늦게 정비된 현재의 연수동과 성평 등활동지원센터가 있던 상상청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료들이 매일 진행 정도를 살피러 구경을 다녔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 같았고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 변신하는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나중엔 오래된 창고가 전시공간(SeMA)으로 새단장을 하기도 했으니까...

사회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오래된 것들, 생태 환경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사회혁신 정신을 담은 상징적 건물이 될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동료단체들도 들어오고, 이제 여기가 진짜 사회혁신파크가 되긴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2015년에서 2016년 즈음. 제가 서울시로 파견나가 있었는데, 당시 마을센터 사무실은 50플러스 서부캠퍼스 건물에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서울기록원 기반공사로 다이너마이트를 계속 터뜨려서(땅 속에 큰 바위를 깨고 기반을 다짐)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움직이고 큰소리가 나서 일하기 어렵다고 동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죠. '저런 공사를 할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하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사회 혁신이 아니잖아?!' 싶었죠. 우리가 입주한 2012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2018년까지 이어졌죠. 파크 도시재생이라는 게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모양이다.(웃음)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어디 어디에는 뭐가 들어온다더니 계획이 바뀌어서 어디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면 우리 동료들 중에는 건물 옥상이 가끔씩 개방될 때 올라가서 예정지를 내려다 보곤 했어요. 저기가 사경센터인보다 저기가 청년청인가 보네 하면서.



2015 서울마을박람회 제8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2015.9.10

2015년에 '서울마을박람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를 혁신파크에서 열었어요. 25개 자치구에서 각종 마을행사가 열렸고, 전국의 마을 활동가는 25개의 마을에 방문하기도 했지만 혁신파크로 초대해 교류하고 밤늦게까지 행사가 진행되었죠. 파크에 숙소가 없어서 2박 3일 동안 불광동 일대에 숙소를 정해 전국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혁신파크를 경험하게 했죠. 당시에 혁신파크는 전국적으로 유래없던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전국의 마을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지원센터부터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변해가는 혁신파크를 보여주기 위해 공사판이 될 예정인데도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이쪽으로 초대했던 거죠.** 이 행사는 다행히도 큰 공사를 앞두고 치뤄졌어요. **공사로 완전한 난장판이 되기 전에.**

처음 3개 센터(마을, 청년허브, 사회적경제)가 주축이 되는 교류모임이 있었어요. 3개 센터장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각 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협동 활동을 하면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 그러니까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중간지원조직 간의 사회혁신 교류대회? 같은 것을 했어요. 각 센터의 직원들이 혼합된 조를 만들고 파크 내 건물 여기저기를 함께 다니며 미션을 수행하고 도장 찍기하고, 그 조끼리 같이 점심이나 저녁도 같이 먹고 후속 모임까지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협력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개 단체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후 파크 밖에 있었지만 서울엔지오지원센터(현 서울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서울혁신센터가 결합되었어요. 이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크리킨디센터라든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입주가 많아지면서 교류모임의 형태와 방법은 조금 느슨해지고 달라졌어요. 마을을 비롯한 초기의 중간지원조직은 파크에서 다 나가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일

단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회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파크에서 다 나가고 혁신조직들이 주로 있는 곳으로 만든다. 그래서 파크는 사회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실, 국제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청사진 안에 있었던 거죠. 여기를 전국, 전 세계 사회혁신가가 교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좀 설렜거든요. 굳이 사회혁신가라는 정체성,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도 돼요. 그저 이곳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길 바랬죠. 큰 명상관을 만든다든지 이 파크의 자연환경이 주는 선물을 충분히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없애지 않고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꽤 많은 이들이 그리되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사회혁신의 시행착오, 관계와 신뢰의 부족

마을센터에서 일했던 동료 중에서 혁신파크 준비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서울혁신센터 1기 멤버죠. 입주하고 있는 주체가 준비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조직에서 나왔고, 그 친구가 하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여성들이 도시계획의 주체가 된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연배가 있는 남성혁신가 1세대 선배들, 그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사회혁신을 섬세하게 다룬다는 느낌이 적었던 거죠. 남성중심적 리더십으로 혁신파크 조성 계획이 진행되면서 준비그룹 내부에서 공유와 공감의 부족했고, 대외적 공론장을 설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통의 어려움을 꽤 겪었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를 여성적 리더십으로 빌드업 해 나갔다면 어땠을까?

이 일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 하듯이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의 정신과 그 정신을 물리적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협력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정신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물질화하는 기술이나 능력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회혁신 정체성은 많이 사라지고 공간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점점 나왔어요. 사회혁신이라고 얘기하면 급진적으로 확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위성을 뒷받침하고 믿어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신뢰관계의 층이 두텁지 않은데 자꾸 뿔 성취하듯이 저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혁신에서 중요한 건 신뢰지 폼이 아니다.(웃음) 변화 과정이 고될테니 마음 내서 함께 실천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혁신인거죠. 결국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기획 잘하는 실력이 아니라, 1차로는 마음 낼 줄 알고 어려운 일 같이 해줄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무얼 한 번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전 의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신뢰쌓기가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제일 어렵기는 하죠.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그 논쟁을 좀 더 대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채 끌고 가려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 혁신파크가 사회혁신의 정신이 담긴 공간이잖아요. 새로운 시대정신인데 그 시대정신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사회적 가족, 노는 공원, 일하는 집

혁신파크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청년 집단과 우애가 깊어진 거예요. 이전에 사회복지와 여성정책 분야에서 일 할 때는 주로 윗사람들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크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세우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주축이 여러 개 세력이어서 약간 긴장적 관계에 있기는 했지만 나한테는 이 질서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보였던 것 같아요. 선배 조직들에서는 만날 수 없는 풋풋함이나 선배들한테 끌려가는 조직이라고 해도 결국엔 자기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처절히 직면하는 청년 그룹들을 보니까 힘이 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내가 선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관심만큼 애정도 키워야겠다 한거죠.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없는 내가 본의 아니게 터주처럼 이곳에 오래 지내며 조상님 역할을 하다보니 마치 일가를 이룬 것 같은 느낌으로 발전된 것 같아요. 사회적 가족이라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 남의 조직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나도 모르게 인류애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나한테 그게 기쁨이었구나. 우리 일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사회적 책임을 많이 느끼게 하죠. 어제 우연히 혁신파크에서 만났던 청년과 만났는데 혁신파크에서 공부하고 꿈꿨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마주하니 우리가 지향한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체적 삶이 한낱 꿈 같은 것인가 의구심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나는 여전히 꿈이 아니라 머지 않은 때에 현실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파크는 늘 공사판이었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고 교류하고 네트워크 할 때가 참 좋았어요. 나는 여기가 진짜 공원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집에서 멀지 않은 파크. 주말에 파크에 가보면 여기서 입주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행사로 보이는 별의별 사업들이 벌어졌고, 우리 센터의 젊은 동료들은 자기 친구들이 이곳의 입주기관이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자주 들러 교류하고 어울리며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놀며 자연스레 일도 한 거죠. 초기에는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내부 공간 뿐만 아니라 공원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먹고 서로 어울리기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일들이 많아졌고 공원에 나가 한 번 돌아볼 시간이 줄었지만, 옛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일하는 장소로서 최고였다고들 이야기해요. 눈만 돌리면 푸릇푸릇한 자연이 있었고,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장소였죠. 나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산 아래 있을 정도니까요. 파크 정문으로 들어갈 때 멀리 북한산이 보여 마치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크는 일하는 집, 우리 집은 쉬러 가는 집이었죠.

파크 산책, 이별의 의례

2021년 11월에 사단법인마을 이사님들과 마을센터 직원들이 이곳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나가는 기념식을 했어요. 그게 11월 가을이었는데, 파크 건물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도는 거죠. 그때 단풍이 아름다웠고 동료들은 사진을 엄청 찍었는데, 나는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그냥 머리에 담아둬야겠다 했죠. 이 모든 것이 무상한데 사진으로 담아놓으면 자꾸 미련이 생겨 아픔이 남을 것 같아서. 그때는 진짜 (사진을) 보관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사진들이 없네요. 당시 동료들이 2~3일 동안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단독방에 계속 올리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단풍이 잘 들었던 해였어요. 파크의 건물 구석구석까지 다 갔던 친구들이 있고, 우리는 당시에 법인이 수탁을 그만두는 졸업식이었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부서장들이었어요. 다수의 동료들은 남아 있는 거라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을 이곳에 남긴다고 그렇게 다녔던 거죠. 예술동, 서울시립미술관 창고(SeMA)까지 다 훑어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별 의례처럼 되어 나중에 이곳을 떠나는 기관들도, 마을센터가 완전히 없어질때도 그랬다고 해요.

2023년 10월에 법인 회원들과 파크 나들이를 했어요. 사단법인마을 회원들 중에 은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을센터 직원일때 이사워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일했던 장소이고, 혁신파크는 남기를 바랐는데 이 공간마저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와서 교류하고 그때 기억나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이날 퍼머컬쳐 축제가 열리고 있어 풍성했죠. 축제가 없어도 우린 그냥 와서 파크를 탐돌이 하듯이 걸으려 했어요. 걸으며 우리에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데가 어디일까 돌아보니 참여동, 우체국 건물 그 안에 있는 중정과 사무공간이었어요.**



참여동 내부의 중정과 목련나무, 2020.7.10 촬영

그 건물에 사단법인마을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우체국 건물 2층 사무실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사무공간이 넓으니 그냥 우리도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였어요. 저도 여기서 1년간 일했어요. 2층 복도에서 중정을 내려다 보면 큰 목련나무가 있었는데 그늘 아래서 도란도란 일도 삼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이유도 우리 법인한테는 고향 같은 공간이라서 없어진다고 하니 거기서 한번 만나자 한 거죠. 우리가 중간지원 조직 만들고 일만 하려고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요.

중정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 얼마 전 은평의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주민들이 모여 혁신파크를 추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추억하는 장소를 이야기했고, 쉽게 잊혀지거나 정리되지 않을 공간이란 걸 우리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지금도 100여명의 회원이 온라인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1만 원 내외의 회비를 내면서 소식지 만들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번개 모임을 하고 있죠.



서울혁신파크 카페슐 앞에서, 전민주. 2024. 6. 13 촬영

일상의 아름다움으로 채운 혁신의 공간

“혁신파크에서 탄생한 사람들, 사람들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던 파크에 대한 기억은 너무 좋았어요. 환경이 주는 환대의 느낌, 그런 게 내 일과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는지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지 그 가치를, 그런 얘기를 잘 못해본 것 같아요”



혁신파크의 어느날, 2020.9.22 (사진제공: 한선경)

한선경

연결과 소통을 통해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씨앗의 창업자이자 CEO. 희망제작소 활동가 시절부터 국내외 사회혁신주체를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는 일을 담당했다. 2013년 청년허브와 협업을 시작해, 2015년 씨앗의 미래청 미담이사무실 입주, 2018년 상상청 글로벌코워킹존 재입주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혁신파크의 여러 공간을 활용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2022년 씨앗은 발전적 해체를 하고 현재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과 함께, 미래지향적 전환의 경험

청년허브는 2013년도에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같이 협업했어요. 씨앗은 공식적으로 2014년에 시작했고 청년허브하고 가장 많이 한 것은 청년학교 중, 국제교류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 4년 정도 했고, ‘삶의 재구성’이라는 컨퍼런스는 2013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협력한 후 이후에 2

년에 한번씩 할때 씨닷으로 협력했어요. AYARF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 만들때 같이 런칭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 설계 작업도 같이 하고... 씨닷도 이제 두세 명 같이 일하던 조직에서 점점 역량을 키워던 거여서 초기에는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돌아보면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영국에 있는 식스(SIX 유럽의 사회혁신 기관 Social Innovation eXchange)라는 단체에서 원래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Unusual Suspects Festival’을 영국에서 했는데, 그걸 한국에 하고 싶다고 해서 씨닷이 협업하는 파트너로 하고 서울혁신파크와 계약해서 했고, 그때 파크 내 기관과도 협업도 많이 하고 공간도 많이 활용했죠.

‘2018년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은 다양성을 주제로 한 행사였거든요. 파크에 있는 사람 성수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다 같이 33개 세션을 2박 3일 동안 돌리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주제 덕에 2018년에 잘 진행했고 다룬 이야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다양성이 어떤 정적인 상태라는 느낌이 있어서...그래서 이제 좀더 동적인 의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 가진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이 시설에 가야 되니까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서울시의 ‘지원주택’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마침 2019년에 서울시도시주택공사에서 그 모델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주제로

*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은 사회혁신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현장과 섹터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오히려 부족해지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글로벌 사회혁신 커뮤니티인 식스가 시작한 열린 구조로 이뤄지는 협력적인 대화의 장으로, 2014년부터 영국의 도시(런던, 글라스고, 벨파스트 등)에서 4년간 개최되었습니다. 씨닷은 2018년, 2019년, 식스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변화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장으로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을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이름으로 열린 2019년 언서페 서울은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온 개인과 조직들의 이야기를 (1)주거와 공간 (2)함께 살아가는 지역 커뮤니티 (3) 젠더 성평등의 실현 (4) 다양한 사회구성원이라는 4가지 트랙에 담았다(출처: 씨닷 홈페이지 www.cdota.asia)



2019년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Unusual Suspect Festival Seoul
(사진출처: 씨닷 홈페이지 www.cdota.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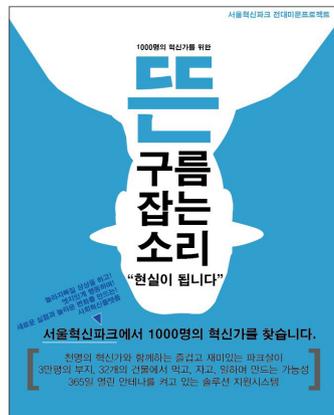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을 했어요. ‘포용’을 주제로 했는데, 함께 진행했던 씨닷 멤버들이 그때 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랬고요.

청년허브 초기에 그렇게 같이 협업했던 거는 씨닷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겠다 생각한 건 아닌데, 이렇게 첫 단추를 꿰다 보니까 미래세대들과 만나고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아젠다도 좀 더 미래적인 아젠다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청년허브에 일했던 사람들이 문화예술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행사를 접근하는 방식도 신선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재밌게 많이 했죠. 씨닷은 조금 독특한 입주 단체였는데, 청년허브에 있을 때는 ‘미담이사무실’을 사용했었고, 2018년 상상청이 만들어질 때 국제기구,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팀들을 유치하고 싶

어서 저희를 초대했죠. HBM사회적협동조합, 나눔과미래, 씨앗이 사용하고 이후에 빠띠, 다크매터랩스, 나우프로젝트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표기관이 돼서 협약을 하고 공간은 같이 사용했어요. 2020년도 당시에 이제 재미나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못했죠.

2015년, 서울혁신파크가 오픈했을 때

처음에 대형 론칭이벤트를 했잖아요. 여기에 100일 안에 천 개의 프로젝트 된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는 순간! 오히려 저는 안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 당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가 막 시작될 때이고, 저런 너무 행정에서 성과를 보여주려는 방법이구나 생각했어요. 사회혁신은 과정을 바꾸고 그 안에서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2015년 서울혁신파크 입주자(단체)를 모집하는 '전대미문프로젝트' 포스터

저는 배불러서 돌아다니는 기억이 많죠. 2015년에 아이 낳고 5월인가부터 (서울혁신파크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왔다갔다 했지만 씨앗은 재택이 기본인 팀들이어서 제가 사무실에 나가는 일은 많지 않았고, 같이 있던 동료들, 인턴들이 더 많이 나와 있었고, 겨울에 저희는 추워서 안 갔던 것 같아요.(웃음) 아마 청년허브도 고생이 많았지만 저희 말고 위층, 서울혁신센터에서 입주시킨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컴플레인 많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수유실이 없어서 제가 제발 조성할 때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1층이 먼저 거의 (리모델링이) 다 되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허브 앞에 뉴욕에 흐르는 무슨 강이라는, 허드슨강인가 물이 흘렀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사고나서 없어졌죠.

컨셉이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로 설명 들었을 때는 멋있었어요. 근데 이용자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점진적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처음부터 아예 새로운 건물로 확 바뀌어서 기능적으로 좋게 하기보다는 혁신가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바뀌는다는 컨셉을 처음에 잡았어요. 그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난방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첫 발을 좀 잘못 디뎠던 게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문화도 만들고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갈지 이걸 기준으로 다른 공간을 개발할 때 점진적인 참여와 발전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서울혁신센터 입장에서는 (입주단체)사람들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도 만들어가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의도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규모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필요성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사회혁신에 대한 경험이, 특히 공공과 함께 맞추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운영 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건데, 누가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여러 공간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또 만들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재미난 경험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긴 하죠. 민간이 했다면 그런 대응이 아주 빨랐겠죠. 예산과 계획과 승인, 이런 과정이 서울시와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서울혁신센터)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사회혁신의 씬Scene,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혁신파크에 들어갔던 건 문화가 달라지는 걸 보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소위 '사회혁신'에 매료됐던 포인트는, 무슨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솔루션이 어떤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당연히 훌륭하고 좋지만,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바꿔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씨앗이 하는 행사에도 솔루션만 얘기하는 행사는 없거든요. 저희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서사를 다루는 게 훨씬 많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파크에서도 그런 걸 다루길 기대했죠. 다시 상상청으로 들어갈 때 준비 회의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상상청이 만들어질까'하면서 사람들이 상상을 막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으는 과정이 파크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회혁신가로서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멤버십이 있길 바랐고, 거버넌스를 다르게 다루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했죠.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제가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초기에 진입한 친구들이 파크에 계속 있으면 사업이 커지기가 어렵다는 걸 판단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크를 그냥 사무실로 쓰고, 나중에 나오는 게 필요한, 이런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과 판단에 또 공감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혁신하면 파크와 항상 비교된 곳이 성수동이죠. 성수동은 특정세대, 기본적으로 동료세대가 함께 등장했고, 자원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아주 무섭게 성장하면서 본인들 중심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미션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다 갖춰가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혼재되었죠.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닌데 강점이 발휘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생각하면. 파크 내의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은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전수될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리더급들은 회의를 통해서 서로를 더 만나고 확장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 사업하면서 있었던, 안 그랬던 사람들은 아마 그 안에 있던 대단한 역사들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저는 많이 아쉬워요. 그게 파크여서도 아쉽지만 시민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사회혁신 흐름을 생각하면 더 아쉽죠.

파크가 예전과 달라진 후 사회혁신을 얘기할때 재미가 덜하더라구요.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층위가 있어야 자기들 포지션도 비교하면서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성수동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점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설명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 좀 다른 거버넌스도 만들어보고 그랬다면? 오히려 파크로 존재할 때 다른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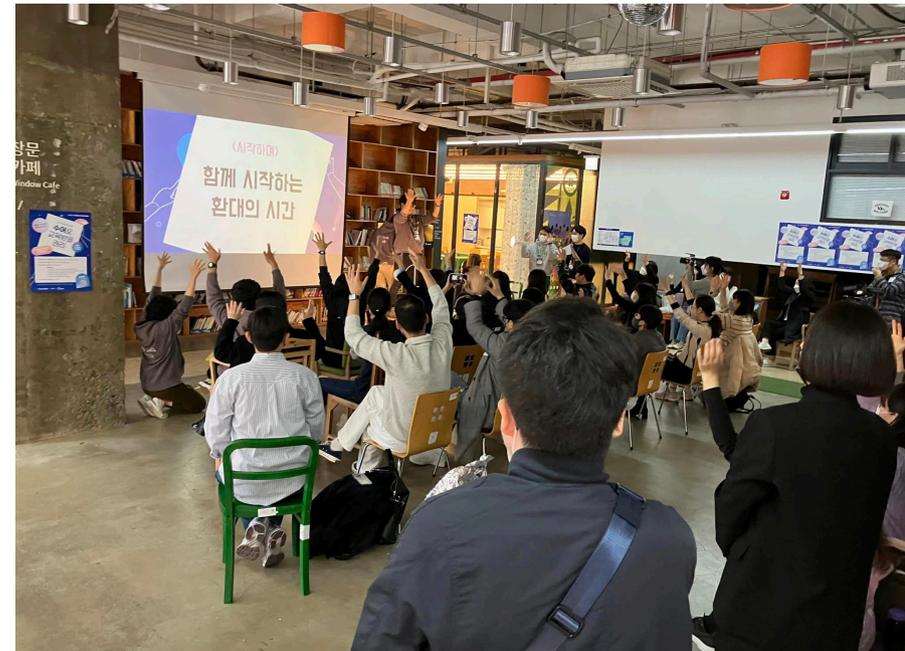
동성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혁신파크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아쉬운 마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과 이야기, 자연이 연결되는 곳

파크 내 사람들 기억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탄생한 사람들, 사실 청년이라는 의제도 파크가 시작될 때는 거의 없었을 때였잖아요. 청년들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에너지들이 엄청났죠. 그때 그걸 경험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의 커리어 변화를 지켜봐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런 건 다 너무 좋은 기억 속에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웃음) 너무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은 모두 너무너무 기억나죠.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2013년에 청년허브와 했던 '삶의 재구성' 행사에서 기초연설자가 훌륭한 연구자이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여행을 다닐 때도 연습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셨어요.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창문카페에서 연주를 해주셨어요. 클로징할 때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보다 그 연주 장면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크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행사가 코다코리아(CODA KOREA, 농인의 자녀인 코다의 모임이자 네트워크)가 농인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였는데, 소리를 다 빼고 했어요. 청인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소리로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기획된 행사였거든요. 조용한데 시끄러운 그런 공간이 연출되거든요. 농인들하고 있는

면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공간에 사람들이 내는 분명히 시끄러운 에너지가 있는데 소리는 없고, 시끄러운지 알겠고 사람들 보면 말하느라고 너무 손도 바쁘고 그런데 나만 안 들리는 거죠. 그런 행사는 사실 다른 데서는 해보기 어려워요. 파크니까 그래도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해도 다 수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모-두를 위한 교육: 수어로 교육받을 권리, 2022 (사진제공: 한선경)

2018년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오프닝 런치를 옥상에서 했어요. 그때가 가을이었으니까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공기는 좋은데 하늘은 파랗고... 진짜 많은 세션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식사를 가장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파크에서 했던 세션과 파크 밖에서 했던 세션을 생각해 보면, 다른 곳에서 한 세션은 내부만 기억나는데 파크는 항상 환경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한 행사도 밖에서 나는 이야기들, 이렇게 안과 밖이 다 같이 연결돼 있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으로 위로받은 기억

각자가 펼쳤던 기억들은 어떻게든 잘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파크 입주단체로 있었던 팀을 만나게 됐어요. 파크에 서울미술관과 협업해서 운영했던 공간인 SeMA 창고가 있는데요. 그 팀이 완전히 창고가 되기 전에 거기서 공연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향 다루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음향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가치에 진짜 온 마음을 다 했던 프로젝트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그때 어떤 기억이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얘기더라고요. 지금은 모두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포지션에 있을 수 있어도,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하고 시도도 했던 일들은 진짜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파크를 떠올리면 파크 입구에서 보이던 북한산이 보여요. 마지막에 파크 정리하고 나올 때도, 이제 저걸 못 보는구나 싶어 아쉬웠어요. 그 외에도 곳곳에 재미있었던 게 많았어요. 배추도 심고 거기에 텃밭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 오염된 땅인데 괜찮냐고 그레놓고는 또 되게 맛있게 김장해서 먹고(웃음), 아무튼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그렇게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서울에서 있기 어렵잖아요. 생각해보니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밤늦게 퇴근할 때 찬 공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맑은 공기는 없지... 그랬는데 그때는 왜 잘 몰랐을까요.



2018년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오프닝 런치 모습, 미래청 옥상(사진제공: 한선경)

혁신의 감각적인 차이

“감각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서울혁신파크가 좋아보이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은, 공원은 어쨌든 다 섞이는 곳
이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공공재 차원에서
돈 안 내고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좋아했어요”



미래청 1층 창문카페별꼴의 모습(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유선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간을 지향하는 '인포숍 카페별꼴'의 활동가이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창문카페별꼴'을 운영하였다.

2018년 처음 만난 서울혁신파크

전 원래 서대문구 홍제동에 오래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왔지만, 그래도 공원에 갈 일이 없고 월곡에서 활동을 하니까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럴텐데 뭔가 사무공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자기들이 이용해도 되는지를 계속 묻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원을 가로질러서 여기 건물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꾸며놓은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난로가 있었어요. 엄청 큰 화

목난로가, 나중에 철거를 하셨던데. 어쨌든 어떻게 운영되는 공간일까 여
기서 누가 뭘 하는 공간일까 이게 궁금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볼 생
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저희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어디까지 공무원이고 어디까지 공무원이 아닌 것일까
근데 공무원도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원래 카페별꼴은 중증장애인 예술단체와 함께 만든 공간이었어요. 2011
년도에 오픈을 했고 중간 몇 년 전부터 '인포숍infoshop'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카페이긴 한데 전시도 하고 예
술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공간이죠.
2011년도에 오픈할 때는 제가 없었고 이듬해 2012년부터 했던 것 같아
요. 월곡역 안에 있어요. 거긴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카페 공간, 장애
인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든 작은 공간이에요.

2018년에 미래청 1층 카페 운영주체를 공모처럼 모집을 한다고 주변에
서 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고민이 많긴 했죠. 저희는 소수자 마
이너리티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
다고 느낄 만한 폐쇄성이 있어야 활동을 하기 수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력 생존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하면 오픈해서 할 수 없는 거
잖아요. 근데 여기(미래청)는 너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사실 여기서
(카페별꼴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해서 들
어가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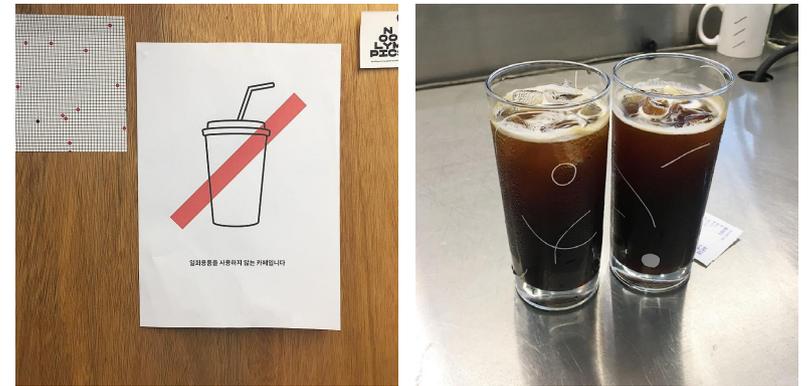
화목난로가 있는 미래청 1층의 모습, 2016년 6월 (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일회용품 쓰지 않는 첫 번째 카페 장애인 접근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공간으로

어려운점? 생각보다 없었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뭔가 프로젝트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BTQ+에 관한 무언가를 했을 때 싫어하지 않을까? 중간지원조직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는 중요했고 그런 데 있어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편하게 있을 수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언짢은 일이라든지 이런 게 싫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정부 소유의 건물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토크하는 거 많이 했어요. 활동가 겸 예술가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 나누고 일본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부르고 음악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청년허브와 같이 시리즈로 기획해서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카페 끝날 즈음 저녁에 해서 거의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할 때마다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을 꼭 넣어서 했어요. 저희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2018년, 2019년 쯤이죠. 일단 장애인 접근성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많이 모자랐죠. 모자랐지만 어느 정도 바꿀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회용품을 안 쓰는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관련 법령이 없을 때였거든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죠. (종이컵) 왜 안 주냐고. 다른 카페는 다 쓰고 있었거든요. ‘엄청 특이하고 재수없다’ 많이 뭐라고 하시고, 당연히 내 종이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카페 주제에... 그때 1년간 진짜 힘들었는데, 1년 쯤 뒤에 정부에서 이제 카페 내부에서는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종이컵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아, 정부 방침 때문이죠” 하고 그냥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닌데요. 원래 그랬는데요.(웃음)



창문카페별골의 컵(사진 출처: 창문카페별골SNS)

서울혁신파크가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은, 공원은 어쨌든 다 섞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 50플러스센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도 카페는 돈 내면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죠.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희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격차가 되게 크거나 격차를 어떻게 넘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었거든요. 2층 사무실은 사실은 그냥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대중적인 공간은 카페인 거죠. 홍제천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오잖아요. 혁신적인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 자율의 방식에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함께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소소한 거 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을 데가 있는 것도 좋고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좋고 책 읽을 데가 있는 것도 좋고... 공공재 차원에서 마음껏 돈 안 내고 혹은 할 일이 없어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책이 많으니 도서관이 아니냐 책을 빌려갈 수 있냐 이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지금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나이드신 분들도 다 좋아하셨어요.

개발과 공공성의 다른 모습들

서울혁신파크 개발 이야기는 2018년부터 있었어요. 지역 주민이 정말 많이 오는 카페였고 온갖 종류의 손님들이 왔었죠. 손님들이 언제 개발이 되냐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거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궁금하죠. 땅값 때문에. 부동산에서 오신 분들도 물어보고 일반 주민도 물어보고, 여기가 그냥 노는 공간처럼 보였나봐요. 안 들어와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개발을 해라 왜 땅을 놀리냐 여기가 언제 큰 빌딩이 되

냐, 오랫동안 국립보건원이었고 그게 나가고 나서 뭔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그런 걸 주민들은 다 아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기간에 여기에 뭔가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이상, 공원에 매일 오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아마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전 매일 오거든요. 집이 가깝기 때문에 아기 데리고 산책을 시키러 와요. 이걸 생존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는 이상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보통 본인의 삶의 문제로 느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 다리 건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여기에 분노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고, 공감대가 너무 없었던 거죠. 뺏기는데 뺏기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뺏긴다는 것부터 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건, 내 삶에서 돈으로 찾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이용할 수 있냐 없냐가 큰 거라서, 예를 들면 당장에 여기 수영장이거나 주민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빈 땅에서 그냥 알아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성이라는 거는 사실 좀 끔찍한 거일 수도 있어요. 반듯하게 개발된 데에서 쾌적하게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공공성을 인간 중심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길게 봐야죠.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언젠가는 미래세대가 지불하게 될 그 돈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장 여기가 쾌적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서 그걸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혁신파크의 소멸에 대하여

아쉽죠. 저희가 운영 안 해도 되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공간이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카페하면서 공공예술하는 다이애나랩이라는 그룹과 '차별없는 가게'라는 프로젝트를 여기서 같이 만들었어요. '차별없는 가게'의 기준을 연구해서 만들고 첫 해에는 서울 시내에서 30개 넘는 가게 맵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차별없는 가게'라고 불릴 만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공간에서 앞으로도 커피를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청년허브와 다음 단체 때 고려를 할 수 있고 같이 뽑아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없어진 거죠. 저희도 이후에 들어올 단체를 도와드릴 생각이 있었지만 공원이 없어지면....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월곡에도 저희 공간이 있지만 이 정도로 크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로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가 진짜 서울에 몇 군데만 있어도 정말 분위기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채로워서 좋았어요. 친구들이 일단 많이 와서 좋았고, 와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서 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여기를 활용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저기 SeMA 창고가 있었잖아요. 연결해서 친구들이 거기서 전시를 했을 때 가까우니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혁신파크는 거대한 의미의 인큐베이팅인데 여기서 뭔가를 상상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의미가 크죠.



처음 만난 사회적기업과 혁신파크

“혁신파크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체득하지 못했어요. 막연히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구나... 혁신파크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많다보니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미래청 1층 창문카페별꼴의 모습(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이자민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에 2017년 6월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까지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2018년에는 서울혁신파크 예술동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참여 작가들의 공간이 생기면서 혁신파크가 일터가 되었다. 그때 이주한 은평구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지금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및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인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에 스며든 첫 직장생활

2017년에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에 입사해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혜화동, 대학로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일했고, 예술가들의 사무실도 대학로 인근에 있었어요. 2018년에 서울혁신파크 예술동에 예술가 작업실이 생기고 거기에서 예술가분들 37명이 같이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사업의 매니저로 함께 했으니 그때는 혁신파크에서 일을 했죠. 다른 사업을 하는 팀들은 대학로 회사 본사에서 일을 하고 공공 사업팀 3명만 혁신파크 미래청 4층에 있었어요.

혁신파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오티 때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체득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여기는 예술가들의 소득과 안정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았죠. 사실 이런 곳이 많이 있고 사회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혁신파크에 들어가니 이런 단체들이 와글와글하고,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출퇴근하면서 보는 광경들이 그런 거죠. 제 기억에는 2018년도쯤에 기후위기, 비건, 제로웨이스트 이런 게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할 때였는데 혁신파크에서는 이미 그런 활동이 활발했고, 리유저블컵을 쓰는 카페도 있었어요. 저도 혁신파크로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텀블러를 샀어요. 혁신파크 정문 입구쪽에 있는, 흙을 발라서 만들었던 그 비전화카페도 기억이 나요. 같이 일하던 분들과 거기 다 지어졌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저희가 '요정집'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직접 참여한다기보다는 워낙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았죠. 비건, 베지테리언에 대한 인식도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제 꿈은 아니었지만 이왕 먹고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세상에 좀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비전으로 갖는 곳에서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정도만 벌면서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의 어려움과 보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마케팅 브랜드 사업을 하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이에요. 일반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매

출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예술가와 일을 한다는 것을 협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용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디자이너, 예술가들과 일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셔서 '그냥 돈 얼마 주면 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고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매칭이 되면 매니저들이 점포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요. 이런 취지의 사업이고 예술가들은 용역이 아니다. 협업을 하셔야 사장님 가게에 딱 맞는 작업을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사장님들이나 소상공인으로 참여한 1-2인 규모의 사회적 기업들은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고, 예술가와 소상공인 서로가 만족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굴곡없는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2018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참가자(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충족시키고 싶은 부분은 월급도 있지만 상업적인 일에 내 작품을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소통이 잘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예술가분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이거 좋은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맞춰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술가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으시죠. 사실 예술가들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감수성이 있으시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대표 한 분이 많은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보니 디자인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잘 신경 못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술가) 인력들이 옆에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제가 회사원이 돼서 주 5일 8시간, 이렇게 일하는 직장이 처음이라 회사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첫 해에도 고비가 있었지만, 두 번째 해인 2018년도에는 중간에 한 번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소상공인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많고, 공공사업 운영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입장이 서로 다른 서너 개의 주체와 동시에 하나의 작업을 해야하니까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마지막 미팅에서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좋았다. 예술가들과 계속 또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좋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 괜찮았다. 보람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매니저)가 예술동에 자주 가면 예술동에서 근무하는 예술가들이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발걸음을 자제했고, 그래서 예술가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사실 예술동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곳이라 기본 설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춥거나 더운 날에는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혁신파크 내에서 흠어져서 일하시라고 했어요. 다행히 미래청과 곳곳에 그런 쉼터들과 카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도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몇 년 예술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소소하게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나도 원래 이거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사업운영과 관련해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 예술가분들한테는 협조 요청을 하거든요. 지각을 한다든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를 저한테 둘러둘러 “회사에 그렇게 하지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약간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도 이야기할 창구는 필요했고, 제가 그런 창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 연령대가 20대 중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또래이기도 했던 거죠. 또 저와는 반대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퇴사하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구할 때도 있었어요. 재미있었던 거는 그 예술가들과 흡연 구역에서 만나면 더 친해지게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동질감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거기서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분들도 소상공인들과 뭔가 자꾸 호흡이 안 맞는다거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걸 매니저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담배피울 때는 소소한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정하고 풍요로운 파크생활의 기억

서울혁신파크 사무실은 미래청 4층에 있는 2칸짜리 방이었어요. 2칸 중 안쪽 방은 회사에서 그림이나 서류를 보관 및 정리하는 공간이고, 문 열자마자 보이는 공간이 저희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큰 유리문 2개가 있었는데

데, 바깥에 큰 유리문이 있고 그 유리문 안 쪽으로 2~3개 단체가 같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희 사무실은 그 공간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태였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몇 개의 단체들이 같이 쓰는 공간을 지나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려 복도를 지나는 길에 위치한 이웃 단체들과 마주치거나, 혁신파크 2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서로 인사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로 안면이 있고 얘기 해 본 입주 기업분들과 마주치면 커피도 한 번씩 사주시고 좋았죠.(웃음)

그런 게 있어요.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나 몰라라 모른 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린 적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걸 인지하고 있던 거죠. 다들 힘들어도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뭔가 공감 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원래 대학로에 살다가 혁신파크에 근무하게 되면서 은평구 구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은평구가 살기 괜찮았어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대학로보다 혁신파크 예술동에서 하는 환경이 훨씬 좋다고 느꼈어요. 대학로 사무실은 혜화역과 꽤 거리가 있는 곳이어서 그냥 사무실만 딱 있는 곳이었고 혁신파크는 행사도 많이 일어나고 문화생활부터 그런 게 많아서 조금 더 풍성한 회사생활 느낌? 미래청 1층 로비에 각종 행사 포스터가 정말 많았어요. 덕분에 너무 일에만 매어 있지 않고 퇴근 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주말에 하는 행사들도 알게 됐거든요. 만약 제가 대학로에서만 일했다면 몰랐을 정보들을 여기서 많이 알게 됐어요.



2018년 혁신파크의 푸드트럭(사진출처: 서울혁신파크 블로그)

혁신파크 공원에 푸드트럭이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아요. 요일별로 다른 푸드트럭이 하루에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창문으로 보이거나 왔다갔다 하다가 푸드트럭 있으면 동료들끼리 나가서 먹기도 했어요. 가을쯤이었나, 굉장히 날씨가 좋았을 때 밖에서 마파두부덮밥을 먹은 기억이 나요. 보통은 별일 없으면 주로 2층 식당에서 먹었고 맛동도 있었죠. 예술가분들과 서로 부담없이 얘기했던 게 맛동 메뉴에 대한 얘기였어요. 맛동 메뉴를 먹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니까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오늘 맛동 가시나요? 예약 못했어요. 내일 메뉴는 뭐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 같이 먹기도 하고, 정문 맞은편에 기사식당 같은 한식뷔페집도 있었어요.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었고, 메뉴를 통일하기 어려

을 때 갔어요. 그리고 미래청에는 층마다 부엌이 있어서 간단히 도시락을 싸와서 데워서 먹기도 했어요.

미래청 옥상이 개방되어 있었는데 가끔 머리 식히러 올라가곤 했어요. 뭔가 휴식장소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고 행하게 넓은 곳이었어요. 거기 있다보면 다른 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온갖 통화를 하시거든요. 어떤 남자가 와이프분과 막 싸우고 울고 불고 하시는 걸 의도치 않게 듣게되기도 하고, 거래처와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나 빨리 들어가야겠다 혼자만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분이다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하려면 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할테니까요.

갑작스런 혁신파크와의 이별

2018년 12월,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이 사업에 참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2년차 계약직이었고 3년 정도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니 1, 2월은 좀 쉬고 보통 3월부터 다시 출근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됐고 뜻하지 않게 혁신파크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혁신파크에 있을 때 그건 알았어요. 거기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10명 중에 20명 중에 1명이 좀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중에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나머지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런거죠.

최근에 카페스에서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춤을 추지'라는 파티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사라진 혁신파크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전 여기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건물 앞에 가구 같은 것들 나와 있고 불이 다 꺼져있고, 서울시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제가 있을 때는 청년청에 창업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공용 공간의 중간 로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온갖 청년들이 다 나와서 먹고 있거나 이야기하고 그런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는데... 진짜 무슨 10년은 지난 듯한 그런 느낌, 아예 죽은 공간이 돼버렸으니까. 예술동은 원래부터 쓰러져 갔지만, 그날 또 비가 와서 무서운 느낌까지 들었어요.



폐쇄된 예술동의 모습, 2024. 5. 26 촬영

다양성을 존중한 커뮤니티의 기억

“존중해야 되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게 더 좋고 이게 더 별로 이런 게 아니라, 저 주제는 저 사람대로, 주제는 이 주제대로 다 이게 사회에서 같이 공존해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코르셋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2019년 N개의 공론장 모습(사진제공: 조아라)

조아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2년 동안 남원에 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였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2019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청년허브 활동가로 일했다.

2013년, 청년들의 작당모의로 시작된 인연

저도 2013년에 ‘청년참’ 지원받았어요. NPO지원센터 다니기 전이었는데, 청년허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에요. 청년 3명만 모여서 놀아도 되고 수다를 떨어도 돼요. 일단 모여서 뭔가 작당을 모의하면 그걸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뜨개 같은 거 하고 재봉틀로 만들고. 이런 걸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웃음) 그런 지원사업이 당시에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결과 발표하려고 미래청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미래청이 바글바글했어요. 저는 그때 뜨개로 만든 팔찌 팔고 교환하고 그랬어요. 공격도 많이 받았던 사업이라 그냥 돈 주는 거 아니냐고, 그거를 다 헤치고 시행한

것도 참 대단했다고 생각하고, 청년허브의 시그니처 같이 하나의 문을 열어준 사업이죠. 그후로도 한 7-8년 계속했고 경기도나 다른 곳에 그런 지원사업이 많이 생겨났죠.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일으킨 어떤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도 해봤어요. 정확히 임팩트스토리랩이라고, 시민들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자기 아파트에 벌레들이 너무 죽어가서 무당벌레를 지키기 위한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시민들이 공익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트쉐어’라는 공익활동모임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3명 이상 모여서 공익활동을 하면 2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N개의 세계관을 만나게 해 준 N개의 공론장

청년허브에는 2019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전북 남원으로 귀촌을 해서 책방을 2년 정도 하다가 모아둔 돈을 다 까먹고 다시 뭔가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원에서 일을 찾지 않고 서울로 다시 왔어요. 시기적으로 청년허브에서 채용 공고가 났어요. 그때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NPO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 혁신파크 안에 허브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허브의 활동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제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다 나간 상태였지만.(웃음) 아무튼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중간지원조직을 별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계가 좀 명확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제 일기를 보니까 2019년 4월 17일부터 첫 출근을 했어요. ‘너는 N개의 공론장이라는 일을 맡게 될 거야’ 라고 직무를 받고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약속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공론장에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방해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제지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포용할 수 있는 N개의 공론장 약속문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2018년부터 N개의 공론장 1기*가 시작됐는데 당시 약속문은 간단하게 있었어요. 2019년에 2기**를 하면서 이전 약속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구를 추가하는 거였죠. 제가 약속문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종이를 오려가면서 약속문 순서를 조합하고 약속문 1번으로, 제일 처음 뭐가 오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시에 고민해서 만든 첫 약속문이 ‘우리는 상호 높인 말을 쓰고, 서로의 지식, 경험, 가

* <https://brunch.co.kr/@youthhub/3>

** <https://brunch.co.kr/@youthhub/26>

청년허브 이후, 일과 실패의 전환

사실 'N개의 공론장'* 사업은 재밌고 정말 배우는 게 많았지만 행정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생수 천원 쓴 것도 보고서 써야 되고 그런 것들, 일 전체로 보면 거의 5대 5 정도가 행정이었어요. 서울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다 그러면 각 팀에 짝 배분이 돼가지고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자료나 정산도 해야 되고 중간보고서 등 제출해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쓰는 게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속가능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백퍼센트(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었지만, 조직 체제나 구조 자체는 좀 힘들었던 게 있었죠.

그러다가 청년허브를 그만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안 해본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도 마친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대학원을 가볼까 아니야 비싸 그러면서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가보자 해서 다니고 있어요. 다른 분 책방에서도 일도 하고, 언니네텃밭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우연히 지원했던 거예요. 사실 대부분 굶어죽기는 힘들어요. 생계를 위한 돈은 정말 단순 알바나 공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쉬는 날에 도서관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조금 만들어보거나 그런 활동들은 내가 미리 좀 경험을 해놓으면 할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거는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너무 허들을 높게 잡으면 다른 걸가지나 잡생각들이 많아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알면서 도전을 하는게

*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N개의 공론장'은 지역과 세대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사업이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자꾸 떨어진다해도, 내가 원하는 곳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내가 직장, 혹은 조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 경험하는 것들과는 완전 다른 고민이죠. 언젠가는 또 이런 걸 쌓아놓으면 할 수 있겠다 경험해보자 싶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프레임에 벗어나서 멋지게 한번 실패하는 것도 필요하겠단. 실패하기 전에 다 그만뒀던 것 같거든요. 뭔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미리 제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괜히 떨어지게 겁나니까 스스로 미리 한계를 두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남원책방을 사실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멋지게 실패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멋지게 실패하는 게 뭘까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중간하게 돈을 벌고 사람들이 줄 서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멋지게라도 실패를 해봐야 그럼 내가 뭘 원하는 걸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혁신보다는 파크의 기억

서울혁신파크를 혁신보다는 파크로 봤거든요. 청년허브에 있을 때 센터장이 커먼즈에 대한 지향점이 커서 학습도 많이 했고 토론도 했으나, 저는 (혁신파크가) 퍼블릭 커먼즈를 지향했지만, 결국 퍼블릭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야외공간 전체도 그렇고 미래청, 혁신파크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 커뮤니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언어로서 커뮤니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그다음에 존재를 생각하는 것도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행정의 수장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서울혁신파크가 흐지부지되고 같이 으샤으샤했던 청년들도 흩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몰입했다가

앞길이 딱 막혀버리면 허탈하고 좌절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되지' 그러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파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보면, 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방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생계는 필요하니까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흩어져 있구나. 하지만 그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해본 분들은 또 어떤 구심점으로 갑자기 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청년허브를 나올 때는 이미 입사할 때부터 사실은 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했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고 나오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딱 마흔이예요. 30대의 대부분을 중간지원조직에서 보냈죠. 청년허브 직원들도 좀 결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점심 때마다 상상청 뒤편으로 가보자고, 비건카페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들고 돌아다녔어요. 목공동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목공클래스는 언제 여냐고 물어봐서 허브직원들과 저녁에 일 마치고 같이 가서 서랍 같은 거 만들고 버려진 조그만한 물건들 주워오고 그랬어요. N개의 공론장은 저녁에 행사가 많아서 야근하는 일도 많았고 갑자기 팀장 소집해서 회의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녁에 뭐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중간중간 틈나는 시간에 여러가지를 했어요. 보고서 쓰다가 머리가 멍할 것 같으면 역시 파크 한 바퀴 돌고 아니면 미래청 옥상에 가서 하늘 좋은 날 보면, 하늘이 진짜...

혁신파크에 오는 분들 대부분이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똑심있게 일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하게 꾸미지 않고 심플하게 다니는 분들 보면서 영향도 받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거 하나 정말 강력하게 새기고 (청년허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2021. 9. 16 청년청 앞에서(사진제공: 조아라)

모두를 위한 공원을 위하여

“슬프게도 코로나 단절의 시기에 폐쇄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파크에 세무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구조입양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동물들과 같이 교감하고 입양도 직접 하고 자원해서 산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나영, <물은 뒤섞고 흐른다> 생활쓰레기 브리콜라주, 2024, 영월기행 전시장

나영

은평구에서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자 은평민들레 당 당원으로 지역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 처음 친구들의 일터인 혁신파크를 접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청년청에 입주하며 코로나 시기 동안 단절된 파크를 경험하였다. 현재는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페썬을 지키는 활동에 연대하고 있다.

이상하고 멋진 혁신파크를 만나다

쓰레기 주워서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집이 은평구 신사동이고 작업실은 응암3동이거든요. 출근할 때 보통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보고 저거 쓸 만하다 싶으면 작은 가구 같은 거 주워가지고 작업실에 씻어서 보관해놓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거 뭐 만들지?’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로컬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채집인 또는 농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쓰레기를 줍는 거지만 옛날에는 바구니를 엮을 때 짚이나 갈대 같은 걸로 만들었잖아요. 저도

쓰레기를 갈대처럼 수확, 채집해서 뽀갸를 만드는 농사예술이라고 상상해요.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파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극복하고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니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2016년에 제 친구들이 입주단체로 미래청 안에 있었어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사업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한테 놀러가면서 혁신파크를 처음 가보게 됐어요. '서울이노베이션 팸랩'도 이용해보고, 팸랩의 여러 장비 사용과 공간이 그때는 오픈되어 있어서 그냥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고 교육도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 신청해서 수료하고 레이저 기계 이용하고 하면서 처음 혁신파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캠퍼스 같고 나무도 많고 건물이 여기저기 웅기종기 있고, 단지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도 크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은평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뽀갸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은평으로 이사 온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건페스티벌도 알게 되었는데, 2016년에는 비건페스티벌 셀러인 지인이 있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먹고 구경하자 그래서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히피처럼 입고 누군가는 해외 악기 두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춤추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생경한 광경인데 나무랑 너무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와!' 했어요. 비건페스티벌이 평화와

* 서울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팸랩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서울혁신파크 제작동에 '서울이노베이션 팸랩'을 만들었다. 팸랩은 약 150평의 공간에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컴퓨터 수치제어장치, 선반, 밀링, 용접기까지 갖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제작해보는 기술기반 사회혁신 실험실로 운영되었다.

사랑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좋았어요. 신기하고 어색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 봤던 그 비건페스티벌이 사실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2017년에는 피아노숲에서 하는 비건페스티벌 셀러로 두 번 참여했어요. 그때는 비건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랑 둘이서 제주도 하굣청 만들어서 팔았어요. 옆에 드로잉 하나씩 걸어놓고 드로잉도 팔았는데, 몇 분이 드로잉을 사주시고 했어요. 2019년에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하는 비건페스티벌에서는 자투리 원단으로 만든 가방을 팔았어요. 근데 문화비축기지에서 했을 때는 문화마당이라는 광장에서 진행해서 넓지만 좀 황량한 느낌이었고, 물론 주변에 숲이 있지만 혁신파크는 중간 중간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늘도 있고 분위기가 있어서 비건페스티벌은 혁신파크의 피아노숲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2016년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된 제2회 비건페스티벌, 2016. 10. 1
(사진출처: 비건페스티벌 페이스북)

제가 2016년, 그때는 환경문제로 작업하지도 않았고 쓰레기로 작업하기 이전인데요. 2017년 정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핫핑크돌핀스 후원을 시작했어요. 비건페스티벌 때 '저스트 프로젝트 Just Project'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들의 브랜드인데, 헌옷으로 직조해가지고 러그 만들고 과자비닐이나 그런 걸로 엮어가지고 수공예 지갑이나 파우치를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거든요. 그날 친구 셀러의 옆자리에 그 브랜드 부스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팬이라고 얘기하는 브랜드인데, 알고 보니까 청년청 입주기업이었어요. '멋있다 어떻게 헌옷으로 이렇게 좋은 멋진 퀄리티의 작업을 했을까!' 감탄하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쓰레기 멋지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저의 삶의 영역이 확장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비건페스티벌에서 이상한 짓 하는 많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을 마주치며, 저의 사람 영역이 매우 확장됐어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 만날 일이 잘 없었는데, (파크는) 그런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뒤섞여져 있는 곳, 재밌는 곳, 신기하고 즐거운 곳이었어요.

예정된 퇴거와 코로나 단절의 시기를 거쳐 폐쇄로

2017년에 갈현동으로 이사오면서 은평에서 살기 시작했고, 2019년에 신사동으로 이사해서 지금 '청년 창업인의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집을 작업실로 쓸 수 있을 줄 알고 이사를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집 주소로 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저는 집 겸 작업실로

사용할 생각으로 입주했고, 막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해도 혼자 너무 신경쓰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청년청 입주단체 지원 시기 때, '여기 해야겠다 이번엔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신청해서 청년청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보니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약 1년 8개월,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애매했어요. 2년이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 입주 단체인데, 입주 기간 안내가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12월 31일자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되거 조건이 있었던 입주였어요. 입주 설명회 할 때도 철거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박원순 시장 때였어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청년청, 재생동 건물과 민주노총 건물,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문 쪽) 대로변 쪽을 밀고 서울시립대 건물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청의 모습, 2020. 5. 27 (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제가 입주하기 전에 청년청에 입주했던 분들은 (청년청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밤새 같이 일하고 밥도 해먹고 사람들 다 모여서 평상 펴고 놓고 이런 추억이 많은데, 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코로나 이후의 혁신파크**라서, 그들이 말하는 혁신파크는 다른 혁신파크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 안에 수많은 입주단체가 있는데 네트워크 파티 같은 걸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래청, 청년청 1층은 모두 공용 공간으로 시민 개방이었는데 그것도 막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알던 혁신파크가 아닌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삭막했었어요. 같이 모여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냥 다 각자 공간에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혁신파크를 문 닫기 더 편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슬퍼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이 공간 너무 아깝지 않나? 우리 안 나가겠다고 버텨볼까'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한 번 터뜨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하면서 떠들떠들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슬프게도 코로나 단절의 시기에 폐쇄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퇴거하기 전에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둘씩 떠나니까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자기 생업 때문에 사무실은 구해야 되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싶었던 분들도 지금은 다들 여력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역정당, 기후농부로 다시 파크에 돌아오다

2022년 당시, 계약이 종료돼서 나갈 때는 여기를 막고 싸우고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작업실 구해서 지내다가 제가 지역정당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청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전체 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상상처럼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도 있고 미래청도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태양과바람에 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한데, 미래청 위에 조합이 올린 태양광이 있어요. 이게 점점 남의 일이 아니네... 체감하게 되고 정치사회운동하는 사람들과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공공성에 대해 더 알아가다 보니까, **(파크는) 진짜 서울에 얼마 안 남은 시유지이고 그런 곳에 민자개발을 하면 여기가 더 이상 시유지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땅으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계속 가난해져서 밀려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이후로 쪽 차올라서 지금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때 조용히 나갔는데 이제 와서 청년청 철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민운동도 잘 몰랐어요. 그냥 나 밥 먹고 살고 이런 정도. **2021년에서야 조금씩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협동조합 친구들 3명, 총 4명에서 (혁신파크) 공유텃밭을 신청했었어요. 텃밭을 경작하는 농부들한테 '기후농부'라는 이름 붙여서 땅을 살리는 기후농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농업 파머컬처를 하는 공유 텃밭이었던 거죠. 저의 첫 농사였고요. 상추를 땅에 처음 심을 때 어마어마한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저희 텃밭에 정말 농약을 안 쓰니까 곤충과 친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해야 되나, 원래 곤충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막 대벌레 손에 얹고 이래요. 봉산에서 끈끈이에 붙어있는 곤충을 구출해가지고 딱 데 옮겨주고 이런 지경까지(웃음)



혁신파크 공유텃밭에서 일하는 모습, 2021. 5. 7 (사진제공: 나영)

여러 입주단체가 파크에서 정말 의미있는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당시에 이걸 누구와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내 작업실 쓰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여기에 저렴하게 입주한 사람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 같은 것,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공유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었던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시 단위에서 크게 운영하는 건데 시민들의 공간을 더 잘 홍보할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혁신파크를 모르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혁신파크를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 적도 있었어요

파크를 공원답게 만들기 위한 상상과 실천들

시민모임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철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개발 없이 시민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거를 8월부터 할 예정이래요. 저는 은평민들레당 활동으로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철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마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당에서는 서울혁신파크 정책을 정리하여 웹툰으로 만들었어요. 웹툰은 제가 그렸는데, 청년청을 리모델링해서 지자체 직영의 '동물구조입양센터'로 만들고 주변은 좀더 다듬어서 베리어프리한 평지 숲으로 만들고 나무도 더 심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봤어요.



출처: 은평민들레당 페이스북

정당활동을 하면서 찾아보니 은평구가 반려동물 가족인구가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당근에서 동네생활을 보면 유기동물을 구청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기동물이 구청에서 구조해도 10일 있다가 안락사를 당하는데 그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그 실태를 아는 분들과 좋은 마음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분들 사이에서 댓글로 언쟁이 벌어졌어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나 다른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센터들은 안락사가 거의 없이 운영되고 깨끗하게 건강 관리도 잘 되니까 입양률도 굉장히 높아요. 은평구의 동물구조 용역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니 안락사 조건에 공고일 10일 기한만 있는 건 아니고 너무 낫거나 너무 어리거나 늙었거나 다쳤거나 사람한테 경계심이 많거나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청이라는 건물은 예전에 동물 실험을 했던 건물인데, 동물 실험을 했던 곳이 동물을 살리는 곳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서 은평민들레당 정책도 반영해봤어요. 지금은 구청, 세무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관 말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구조입양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동물들과 같이 교감하고 입양도 직접 하고 자원해서 돌보고 함께 산책하는, 다른 존재와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던거죠.

카페썰은 그 흠집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사람 손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썰 건물이 혁신파크의 상징 같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유지시키고 숲이 많아지면 오히려 혁신파크에 방문하는 시민을 맞이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민 모임 내에서 썰TF로, 그리고 썰의 친구로서 썰에 더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공간을 생각하면 저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는 공원 같은 곳이 시민들의 땅인데 (개발 안하고) 그냥 냅두면 안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고, 개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돈 내고 이용하기 싫고, 돈 안 내고 못자리 깔고 싶어요.



2022년 청년청을 떠나기 전 나영이 직접 리모델링한 간판, 2024. 6. 29 촬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이유

“청년청에 있다가 나갈 때는 사실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아쉬운 건 있었죠. 멀쩡한 공간인데 왜 이렇게 비워놓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쓸에서 사람들을 보고 쓸과 혁신파크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조금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배민지

2016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하여 2017년부터 쓰레기 없이 생활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잡지 ‘매거진슬SSSSL’(small, slow, sustainable, social life)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여 미래청과 청년청 공간을 거쳐 2021년에는 예전 비전화카페 자리에 ‘카페쓸’을 오픈하였다. 2023년 혁신파크의 운영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후에도 여전히 카페쓸을 지키며 혁신파크의 상업적인 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카페쓸, 서울혁신파크의 마지막 장소

올해까지는 버틸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와의 명도소송이 빨리 끝나고, 1심 끝나고 나서도 힘들고 그 중간에 행사 이것저것 치르는 것도 힘들었고... 1심 패소 판결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이제 저희 발로 나가거나 쫓겨나가거나 그 상황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계속 싸우는 것도 항소를 하는 것도 겁이 나요. 안 하고 싶는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양가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내일 제주도나 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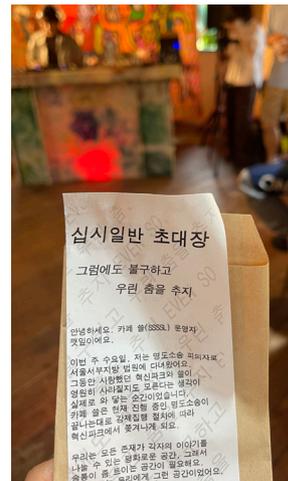
릴까 도망가고 싶다. 카페 문 닫고 가는 거를 참고 있어요. 여기 문 닫으면 사람들이 무슨 일 있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응원하러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쓸은 나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죠. 사실 여기를 천년만년 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잡지하다가 이 예쁜 공간이 계속 비워져 있고 관심 못 받고 그랬던 게 너무 안타까워서 시작한 거예요. 이 공간은 사람들이 와서 손으로 훑 바르면서 한땀 한땀 만든 공간인데, 우리가 나가면 여기를 철거하거나 그냥 비어두고 방치하거나 그 두 가지 밖에 없을텐데 그 꼴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초반에 카페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겠다 카페가 친환경과 제로웨이스트를 구현해보고 실험해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또 혁신파크 안이니까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공간을 해보게 된 건데. 비전화카페 나가고 여기가 1년 반 거의 2년 정도 계속 그냥 닫혀 있었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진짜 거미줄만 잔뜩이었는데 그걸 걷고 청소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하면서 여기를 동네에서 해볼 수 있는 데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카페가 이렇게 돼서 다른 사업은 일단 다 중단했어요. 잡지도.



쓸 포에버파티 포스터와 초대장, 2024. 5. 26



무포장가게쓸 2020.11.7



쓰레기 없는장터 쓸어담장 2023.10. 27

카페를 지키는 일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예전에 청년청 사무실에만 있었을 때도 나가라고 해서 그냥 순순히 나갔어요. 사무공간은 밖에서 또 구할 수 있으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때는 혁신파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출퇴근 시간 말고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카페에서는 계속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성향이고 강아지를 키우고 아기가 있고 없고,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우리도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카페에 안 오시더라도 공원에 계시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없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물어보고, "여기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있고 싶다고 한 게 아니구나. 소통하면서 뭔가 계속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가 없어지는걸 계속 두고봐야 돼?

2023년, 남아서 싸우기로 결심하다

제일 처음에는 청년허브의 미달이사무실에 있다가 2018년에 청년청으로 넘어갔어요. 쓸이 미래청에서 청년청으로 공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2020년 마지막에는 청년청도 이제 나가야 된다 서울시립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예 혁신파크 밖에 사무공간을 구하고 카페는 중간에 계약을 하게 된 거였어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거라서 2021년 11월에 처음 계약을 해서 2022년에 갱신을 하고, 2023년 10월까지 계약 기간이 확보돼 있었던 거예요. 또 너무 억울한 게 협약서에는 평가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평가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절차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혁신파크 개발 계획이 2022년 12월에 났거든요. 제가 움직인 건 그 다음해 2023년 4월쯤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설마 뭐 없애겠나' 그랬는데 입주단체들이 진짜 재계약을 못하고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버틴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변상금과 시에서 연락 오는 압박, 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사업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 연락이 오는 거죠.

진짜로 다 그냥 쫓겨나는구나 그때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답답해서 단체들 찾아가고 거기서 같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모이고 그렇게 아름답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반대 서명 받은 게 2023년 4월이지만, 그전부터 계속 대화하고 시도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랄까...나는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이 안에서 개발된다는 내용들을 알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어떤 방안이나 대책 없이 개발한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주단체는 혜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 공유 공간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저는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개개별로 만나보니 막상 이렇게 나서기는 힘들어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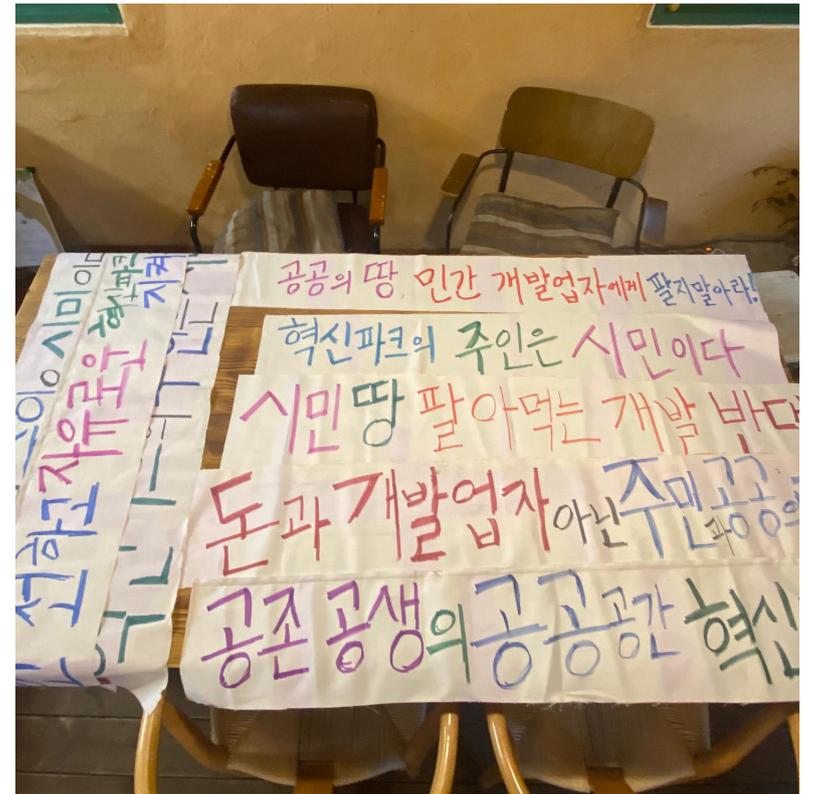
코로나 때 입주해서 다른 단체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새로 온 입주단체, 그러니까 2021년에 계약한 입주단체들은 기존에 있었던 팀들과 한 층을 같이 쓰니 인사떡도 돌리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는 지금은 그런 거 안 된다 서로 인사도 하기도 힘들었던 코로나 때라서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지낸 거예요. 저희는 카페니까 그나마 오고 가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단체들끼리 모여보자 했을 때도 서로 좀 데 멘데멘 했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입주단체들끼리 정보도 알아야 뭔가 방법이 나올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었고. 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이 모여 있는 큰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혁신파크를 운영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서울시 직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방이라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서울혁신파크의 현수막, 2024. 8. 2 촬영

서명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받는 서명이 있었고 서울혁신센터 직원분들이 받는 서명이 있었어요. 혁신센터 직원들이 받는 거는 센터 직원들의 고용을 2년 연장하는데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혁신파크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모두의 공간을 우리 같이 지키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용 승계가 시급한 문제라서 저도 동의하고 서명해줬지만, 한쪽에서 공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체들 밥그릇 싸움하는 건가? 이런... 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명이 전체 큰 흐름으로 같이 갔으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2023년 7월 한창 입주단체들 나갈 때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을 발족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여기가 진짜 없으면 안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활동, 2023. 7. 19 (사진출처: 매거진썸 페이스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울시에서 계속 압력이 오는 것 같아요. 공문으로도 오고 변상금 내라고 그러고, 변상금이야 절차에 따라 내는데... 여기 옆에 이런 데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참고처럼 쓰고 있는데, 저희는 계약을 하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불법 건물, 그런 임시 가건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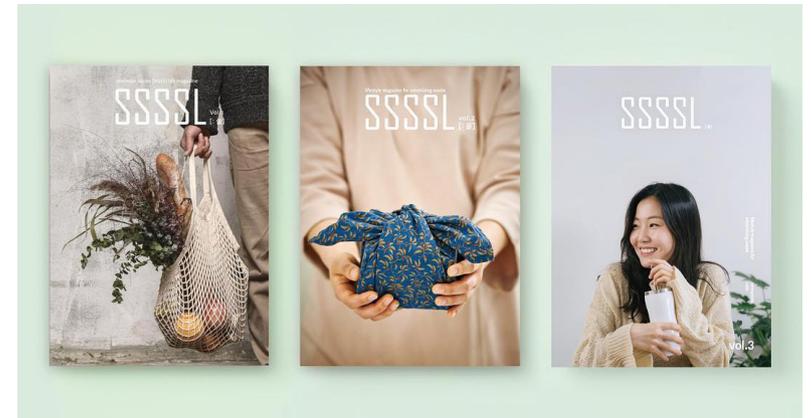
라서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면적 전체에 다 변상금을 문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돈 내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고 해야 정당하죠. 처음에는 밖에서 행사를 하고 싶을 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적법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몇 십 명도 안되는 적은 규모로 한 행사였는데도 경찰차가 10대가 왔어요. 참여하려던 시민분들이 겁먹어서 도망가게 하고... 밖에서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달려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현수막 이런 거 떼라고 그래요.

제로웨이스트, 단순하고 명확한 해법인데

저는 원래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외식경영이 전공이라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을 한참 나갔는데,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비존슨 작가가 쓴 책을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1년에 4명의 가족이 이만한 유리병 분량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저는 제 쓰레기 줄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살면서 그때까지 그냥 쓰레기가 많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였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게 보기 싫으면 내 쓰레기를 줄이면 되는구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책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대' 하고 그 책을 주변에 권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제로웨이스트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왜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고, 제가 사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가) 너무 많아.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문제더라.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문제야. 서울에는 쓰레기 묻을 데가 없고 (쓰레기가) 경기도로 갔는데 경기도

에도 지금 못 받아들인다 하고, 그게 서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지금 포화 상태, 찾으면 찾을수록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오기가 계속 생겼었어요. 예전에는 아나바다*도 했고 쓰레기 줄이자는 얘기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뭔가 운동적인 느낌이 강하고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면 좋겠다. 외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2018년에 발행한 매거진 Vol 1- Vol 3 (사진출처: 매거진슬 페이스북)

환경단체에 찾아가도 얘기가 안 통했어요.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환경운동연합을 처음에 갔거든요.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요. 거기도 활동이 재밌기도 하고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단 말이

*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준말. IMF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에 한국사회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껴쓰자는 취지는 캠페인이다.

죠. 다 같이 천연 염색하는 날이었나 과자를 하나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그냥 다들 콧방귀 끼고 “뭘 그런 걸 걱정해?” 그럴 때였어요. 그때는 더 큰 문제, 녹조, 낙동강 보호, 개발사업들 반대하는 싸움을 더 주력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제가 모두 다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끼고 받고 해서 또 다른 단체로 갔죠. 그러다가 서울로 온 거죠. 서울 와서는 그린피스도 가고 거기서 이제 자원활동하는 또래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잡지 같은 거 해봐도 좋겠다. 그린피스 자체에서도 쓰레기 문제에는 관심 없었어요. 이렇게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누가 여기에 관심이 있나 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나... 이제 환경 운동이 뭐지 환경 문제가 뭐가 심각한 거지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가 서울에 뭐 하던데 정보를 주고 해서 전시 보러 서울 오고 교육프로그램 듣고 그랬는데, 업사이클링 창업 관련 교육이었어요. 근데 저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라는 주제가 공통점이었죠. 잘 모르니까 업사이클링쪽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이게 딱 들어맞는 않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거하고는. 제 머릿 속에 ‘쓰레기’ 이런 게 너무 가득차 있을 때라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그것의 집합체가 잡지였던 거고, 그래서 잡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들어갔고, 혁신파크에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준비하고 그랬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왜 아무도 안 하지?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해도 안 해도 사실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해보는 거죠. 몰라서 한 거죠. 잡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전 안 했

을 거예요. 그게 또 만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낱밤 새야하구. 글은 또 겁나 안 주고.(웃음) 저는 계속 이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어요. 평생? 평생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아무도 안 하니깐 한번 해보지 뭐 그랬는데.

2024년, 혁신파크의 현재

2023년 입주단체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노조의 현수막이 걸릴 때쯤 시민들이 여기가 없어지냐고 많이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곳이 화장실, 미래청 라운지나 우체국은 평소에 혁신파크의 존재를 잘 몰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문이 닫히고 우체국 나가고 그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입주단체들이 지금은 다 나가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범위가 이 녹지 공원만 이용을 하시니까 물어보시죠. 저 안에 뭐 하고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서울혁신파크의 여름밤, 2024. 8.12 촬영

시민들은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편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특히 주말에는 아기들 데리고 오시는 가족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카페도 자주 오시고, 공원도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이희준 배우님이 계시는데, 그 배우님 아들도 여기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 동네에 사시는 건 아닌데 차 타고 오실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쪽 동네는 자전거 배울 데가 없다면서 자주 오셨는데 이제 아들이 조금 커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청년허브 때도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고 청년청 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저는 이 카페하는 게 그래도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혁신파크 안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을 다 마주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책 만드는 것도 재밌긴 재밌어요. 지금도 카페 말고 무슨 일을 할래 하면 잡지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의외로 여기 카페에 와서 카페에 오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강아지들이나 아기들이나 같이 오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관계들이 생기면서 좀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은평구에서 얼마 전에 6억짜리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은평구청 신청사 짓고 싶다. 저는 구청이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 은평구청은 '서울혁신파크 및 불광역 일대 전략적 발전방안 수립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1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서울혁신파크 주변 115,000㎡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주변 62,500㎡ 등 총 177,500㎡를 대상으로 하며, 용역비는 6억원 규모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 2024. 5. 29)



카페슬 앞에서 배민지, 나영, 2024 6. 29 촬영

Zoom out Issue

혁신파크의 공공성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에 대한 회고 | 구은경, 이명희, 박미정

96

서울혁신파크 생태탐방의 기록 | 최영금

114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에 대한 회고



서울혁신파크와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혁신파크가 시작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본 3인의 인터뷰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이 기록은 2010년대 이후 거버넌스와 정책의 영향력으로 확산된 ‘사회혁신’과 ‘커먼즈’의 물리적인 실험장이었던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대담자

구은경(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상임이사)

이명희(뷰임팩트 대표)

박미정(푸른살림 대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오래 활동하셨으니 처음부터 서울혁신파크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혁신파크를 처음 접하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구은경

2014년 겨울 아니면 2015년 1월인가, 그즈음에 처음 갔는데,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땅이? 약간 좀 놀랐고 마당 같은 데가 넓게 있으니 ‘와 ~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가 봤던 공간은 정문 쪽에서 들어와서 우체국이 있었던 건물 3층, 4층을 제일 먼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식적인 입주 모집 기간은 아니었고 이제 사무실이 온다고 해서 사전답사처럼 간 거였어요. 근데 건물이 오래돼서 창문이 흘창이고 ‘여기 너무 춥고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안 나갔죠.

박미정

첫 번째 방문은 아는 사회적 기업이 서초에 있다가 혁신파크로 입주해서 그 사무실이 어떤지 보러갔어요 미래청에. 그 후로는 거기서 하는 여러가지 강의 때문에 강사로 많이 갔어요. 처음 느낌은 정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물의 컨셉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통합되지 않은 듯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질서 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 미래청까지 가는 길에 무슨 재생공원

처럼 털실 같은 게 막 산만하게 걸려있고,(웃음) 그런 게 좀 덜 정돈된 느낌이랄까.



서울혁신파크의 전봇대 집, 2016.10.16 (사진출처: 청년허브 페이스북)

이명희

제가 중간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좋아하는 조직들이 하나 둘씩 입주해서 들어갔어요. 많은 조직들이 파크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먼저 불러주나.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갈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혁파(혁신파크)’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정도로 설렜던 것 같고, 그래서 가면 페이스북에 올려야겠다. 한동안은 혁신파크 갈 때마다 페이스북에 “저 여기 있

는데 같이 차 드실 분~?”이라고 올렸던 것 같아요. 나도 거기서 일하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뭔가 관계망 속에 있다. 굳이 얘기하자면 사회혁신의 관계망 속에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서울혁신파크는 3개 청, 10개 동, 1개 관, 카페 2개, 혁신광장, 피아노숲 등 그 규모만큼 다양한 건물과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물과 공간이 있다면, 그곳의 특색과 그 공간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구은경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2016년, 미래청에서 여성 사회적기업 대표를 모아서 했던 행사예요.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여성 대표자들의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포럼처럼 준비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제목은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였어요. 내용적으로는 세 개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전반적인 여성 노동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기업의 재무 구조,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80개나 되는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공유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나를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필이면 혁신파크에서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

있죠. 참가자 모집할 때 사람들이 금방 찾고 그다음에 후속 모임들이 생겼어요. 그걸 계기로 한 1년 정도는 이러저러한 분야별 대표자들 모임도 한 번씩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안에서 여성 사회적기업 1세대 대표자들끼리 만나던 것에서 갈래가 분화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획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거를 받아서 예산을 준 거였어요. 직접 기획하지 않은 예산을 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던 기억이 있죠.



사회적경제 여성리더 포럼, 2017. 10.28

이명희

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개월 동안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 AYARF’ 이라는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때 메인 행사장이 다목적홀, 거기 의자를 양쪽으로 치우면 강당처럼 되고 합치면 그냥 컨퍼런스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도 거기서 하고 지역 발제는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서 했어요. 아야프 마지막 날에는 DJ 불러서 무대 설치하고 댄스도 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다목적홀이었죠.

그리고 연수동 1층에는 로비 공간이 있는데, 편안한 대화는 그쪽에서 진행했어요. 대규모가 아니라 면대면으로 친해졌으면 하는 한 세 네 사람 정도, 벽난로 앞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구성으로요. 그때 연수동에 숙박하시는 분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열흘, 일주일 이상 머물려면 이제 호텔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되게 저렴했어요.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한테는 더 할인이 됐고 소셜한 부분만 인정되면 외부 사회적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해요.



연수동 로비 공간(사진제공: 이명희)



개인적으로도 다목적홀을 좋아했는데, 저한테는 의미있는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호텔같이 팬시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가장 비싼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의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비싸지 않고, 비싸지 않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 사용에 대한 신청만 하면 되니까 사회에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싶고 누구를 불러서 얘기 듣고 싶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혁신파크였던 것 같아요. 혁신파크의 다목적홀도 그렇고 상상청 2층에 있는 하모니홀, 계단으로 1층과 2층이 연결되던 그 공간에서 행사를 했고, 국제교류 측면에서 네트워크나 지식 함양 부분에서 심플하고 담백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입주한 기관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일하다가 와서 참여할 수 있었죠. 시간이나 피로도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컨퍼런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우연한 만남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2020년 AYARF 행사장소인 다목적홀의 모습 (사진 제공: 이명희)

박미정

네트워킹은 기본적으로 공유 공간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 카페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혁신파크 같은 곳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면서 장소를 찾는 일들이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강의 공간은 별로였어요. 강사들한테는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조성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유 공간에서 강의장을 설계할 때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강의장은 오픈형이면 안 되고 방음, 소리에 민감한데 가림막처럼 해놓으니까 바깥의 소리 다 들어오고, 안의 소리 밖으로 다 나가고... 사실 강의장 방음 문

제는 어떤 공유 공간을 가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 강의장이나 공간 운영을 할 때도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매뉴얼화 될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너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뭔지를 고민하게 했던 공간인 거죠. 그런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라 '공유'라는 콘셉트까지는 갔는데, 공유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공유는 엄청난 행정 조직이 서포트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공유 공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유지의 비극'이구나... 이 문제는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고민의 시발점이 바로 혁신파크였던 거죠.

구은경

저는 혁신파크를 10년이나 왔다갔다 했는데, 건물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입주하는 사람들 말고 가끔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있어요. 뭔가 호명되는 이름이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미래청을 중심으로 두고 건물 위치를 설명하고 찾아봤던 건데, 생각해보니 공간들의 특색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공유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켓할 때가 가장 빛났다고 생각했어요. 국제도시농업 컨퍼런스를 하고 비건 마켓을 야외 광장에서 했는데, 그때 여기는 이런 거 해야지 어울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2022년에 서울시의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금 남아있는 세 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와 협약기간이 끝난 입주단체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퇴거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서울혁신파크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값싼 월세로 특정한 입주단체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서울혁신파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접근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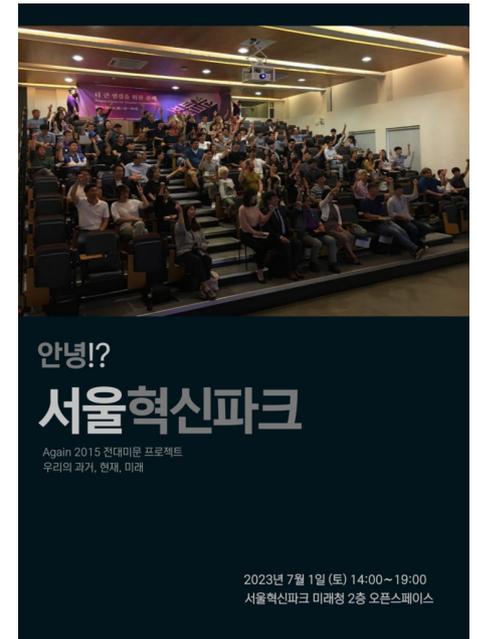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공간에 주인의식으로 관여했다면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을까? 또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하는 생각으로 머물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이 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관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지 라는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박미정

서로가 책임질 수 없는 핵심은 피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입주단체 입장에서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문제에 관여하기가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얘기하기는 어렵죠. 서울시 쪽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돼버렸을 뿐이고, 여기가 무슨 고시원도 아니고 값싸서 들어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미 그 말 자체가 나는 월세 이상 내는 거 이상으로 관여해야 되거나 책임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든 생태계를 꾸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 혹은 고통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파크가 문을 닫았다면 공유 공간을 더 내놔라 또 제2의 실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죠.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공의 수요가 있으면 공간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로서 혁신파크 얘기를 해야하는 거죠.

단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 하는 얘기지 누구를 어찌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몸 담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입자의 입장인데, 누가 공공성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오히려 입주단체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싸게 들어왔든 비싸게 들어왔던 건물과 공간이 공공 정책에 의해 왔다갔다 불안전했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싸지도 않았어요. 나같이 작은 사무실과 공유 회의실을 원하는 사람은 민간 공유 사무실을 찾죠. 차라리 월세를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니까요.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들 참 대단하네. 내가 너무 사회적경제 마인드가 부족하고 개인 실리주의자인가? 저 사람들은 돈 내고서도 저기서 뭔가 공간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월세가 싸지도 않았을 뿐더러, 원 오브 템 one of them 되고자 하는 동참이잖아요.



2023년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입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집담회

이명희

혁신파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혁신파크는 정부가 주도하는 퍼블릭 public 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할 때도 퍼블릭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적인 목적으로 할 때도 개인이 공익활동을 할 때도,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좋을 때는 그냥 갖다 쓴 거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부는 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혁신파크를 잘 운용해서 모두 행복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혁신파크는 처음부터 계약이 있고 서울혁신센터가 입주단체를 선정해서 입주를 하는 곳이었잖아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만, 계약 종료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일순간 투명하게, 어떤 막이 걷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사회적경제 조직들 그리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나갔을까? 이 사람들도 계약 관계에 묶여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라는 게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래알처럼 다 스러졌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커먼즈’로 할 거였으면 혁신파크에 입주단체로 모였을 때 이를 공고하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진 혁신파크 안에 입주하면서 커먼즈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 커먼즈(common)는 공유재(재) 또는 공유자원, 공유지, 시민공유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 커먼즈의 본래 의미는 사회적으로 공유가 실현되는 가치와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토지를 포함한 자연, 문화와 언어, 생산과 소비 활동의 부산물, 교육 효과 등을 망라하여 사회 구성원이 사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출처: 국토용어사전)

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외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파크 안에 있었어도 안 들렸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신문에 나오거나 누가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쓰지 않으면 모르는 일 이니까. 이제 와서 아쉽다고 얘기하면서 개개인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혁신파크가 조성되고 운영될 때 지향했던 커먼즈는 시도했지만 중단되었거나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박미정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이야기 할때 그 용도나 기능에 대한 고민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게임에서 항상 지게 돼요.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상업적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넓은 땅을 놀리는 게 공공성이냐 너희들이 모르지만 여기 관리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니 민자개발을 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 공공성의 논리는 대항능력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민영화를 왜 시키겠어요? 관이 세금을 안 쓰고 관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무슨 돈 굳는 줄 아는 거죠.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용도 싸움으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 혁신파크의 공공성은 녹지가 초점이라면 녹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하게 해야 돼요. 내가 비용(세금)을 들여야만 여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커먼즈이고 시민자산인 거죠. 그래서 기업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네 비용 들여 관리한다고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원하는 거냐? 정확하게 대책점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평에서는 지역에서 돈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돼도 좋겠지요. 혁신파크에서 1년에 한 번씩 노래자랑이나 백일장만 했어도 사람들이 다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명희

그 공공성을 저작권 공유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걸 공공의 것이니까 저작을 한 개인이라도 공유하면 안 되고, 개인이 그걸 활용해서 수익사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 미덕은 아닐 수 있죠. 저희가 공공재에서 만든 정보나 자료가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오픈소스화 해서 공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소셜섹터에서 일하면서 내가 만든 그 지적인 결과나 생산물을 다

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자료를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예산을 더 들였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다양한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야프 액티비스트 리서치 분들과 연락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거는 공유해야 합니다'라고 규정이나 법칙으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게 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규정으로 만드는 건데, 규제와 규율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은경

서울혁신파크는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던 거를 몸으로 직접 부대끼고 싸우고 하면서, 저도 여기 주최자인가 참여자인가 이런 공유지인 듯 아닌 듯한 공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그냥 선부르게 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성을 실험하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를 계속 실험하는 공간으로 공공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를 알리는 홈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생태탐방의 기록



서울혁신파크에 살고있는 어린 까치의 모습 (사진제공: 나영)

들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2024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올해도 긴 장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다행히 맑은 날이었다. 다가올 장마로 높아질 습도 때문인지 증가했던 러브버그도 줄어든 적절한 시기에 서울혁신파크 생태탐방이 진행되었다. 생태탐방이었지만 새를 찾아보는 탐조활동에 더불어 서울혁신파크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기억을 나누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했다.

최영금

탐방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 이들과 도시공원 생태에 관심을 가진 청년동아리 청솔모클럽이었다. 탐방의 안내자는 은평민들레당 당원이자 봉산지키기 활동에 참여하며 은평 지역에서 활발하게 탐조 활동을 하는 나영님이었다.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잠시, 망원경을 통해 서울혁신파크의 스쳐지나갔던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렌즈를 조이고 풀며 잘 볼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탐방활동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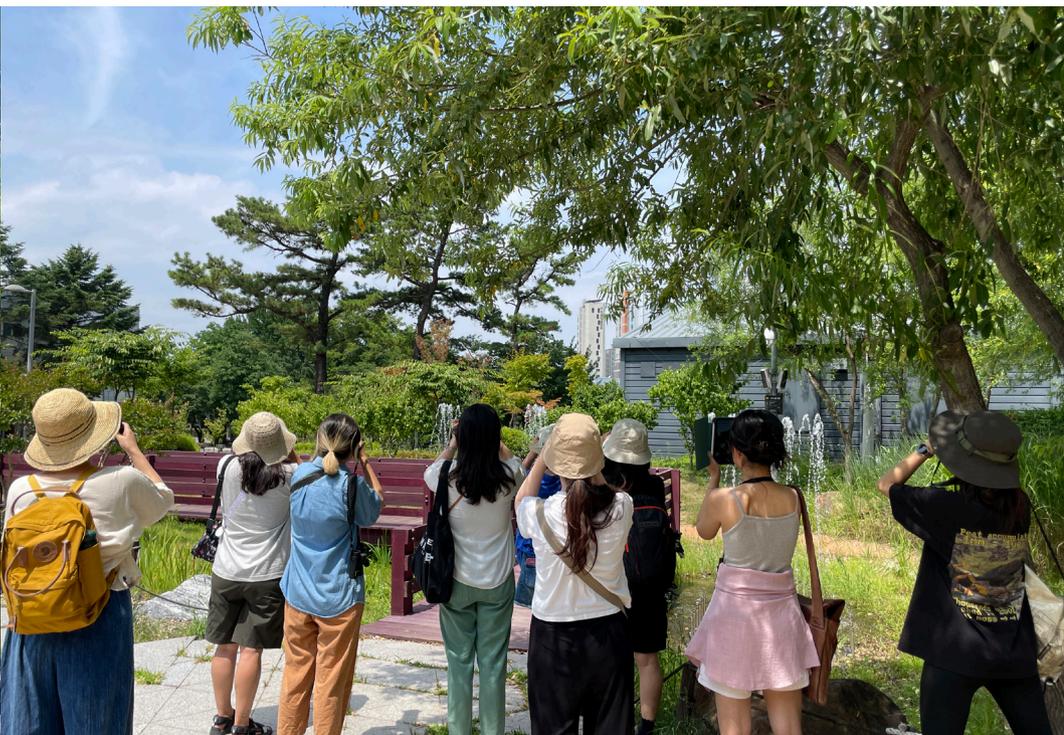


‘어어?! 보인다...!’ 길 가며 마주쳤던 흔한 새였음에도, 망원경을 통해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앉아 있는 새의 얼굴은 낯선 경이로움을 전해주었다. 피아노숲에서 모여 망원경 조율을 마치고 이곳저곳 숨어있는 새를 찾으려 발걸음을 옮겼다. 걷는 동안 마주한 풍경은 사뭇 생경했다. 도로에서 서울 혁신파크 입구로 들어오는 구간 여기저기엔 서울혁신파크의 운영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플렌카드가 보였으나, 피아노숲과 광장에는 운동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리빙하는 사람들과 역방향으로 걷다 청년청에 닿았다. 곧 사라질 청년청 앞에 있는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가득 매달려 있었다. 소나무는 자신의 소멸을 감지하면 있는 힘을 다해 솔방울을 뺏뺏하게 만든다는 나영님의 설명을 들으며 다소 씁쓸한 걸음을 옮겼다. 예술동과 맛동, 제작동을 지나며 오전 11시는 새들이 쉬는 시간이라 나무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목공동과 SeMA창고를 지나 상상청 옆으로 작은 꽃말이 꽃혀진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건원으로 쓰였던 곳이라 그런지, 북한산의 건강한 산자락 영향인지, 서울혁신파크 안에는 약초도 자라고 있었다. 이곳에서 활동한 어느 단체가 그런 식물들을 찾아 이름을 달아준 모습을 발견해 눈에 담았다.



상상청 건물 뒤편으로는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부어 마치 현무암처럼 흘러내린 시멘트가 산을 덮은 모습도 발견했다. 열기설기 부어놓은 시멘트 모습은 미처 알지 못했던 혁신파크의 모습처럼 낯설었다. 그곳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새의 존재를 소리로 확인하며 새의 종류와 위치를 파악했다.



서울기록원 앞으로 난 작은 호수와 키 높은 나무 사이로 꽤 많은 까치 군집이 보였다. 그 호수 너머로 농구장과 피아노숲이 펼쳐졌다.

서서히 한 낮의 햇빛이 뜨거워질 무렵, 대부분의 입주단체가 혁신파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카페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카페썸은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비전화공방 카페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일체의 화학물질과 전기를 쓰지 않던 곳이었는 데, 한동안 방치되어있다가 2021년 썸이 비건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는 원래는 화학물질과 전기를 쓰지 않고 보수해서 생활 기술을 연마하는 비전화공방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공간이 지어질 때 일본의 후지무라 센세라는 선생님이 오셔서 지도 감독하며 지어진 공간이에요. 나무, 흙과 같은 자연 소재로만 만들어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전기를 끌어왔죠.” | 배민지(카페썸 대표)

“비전화공방 때부터 어느 매체 미디어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우연히 스킷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겹쳐 이곳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 이미혜

“초기 비전화카페에 왔을 때 신선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치들을 접하게 된 거였거든요. 내가 살면서 어떤 가치나 지향을 정해서 살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지향은 여기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실천할 수 있을지가 저한테 과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비전화카페에 다시 와 보니 굉장히 시원하고 아늑하고 편안했어요. 그때 불편했는데 지금 오니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인데 좋다. 확실히 전기 들어오니까 더 좋군요.(웃음)”

| 임순영

서울혁신파크에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해 온 역사가 쌓여있다. 미래청, 청년청 등 서울혁신파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커뮤니티 기능이 작동한 곳 역시 오래된 건물들이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유지하고 오래된 건물은 모두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카페들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다.

“혁신파크 콘셉트 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재생하는 것이어서 건물을 일부러 철거 안 하고 계속 사용했던 것도 한 몫 하죠. 우리가 오늘 탐조활동하며 뒤쪽으로 가서 봤던 건물들은 다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 **히나운**

“명도소송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을 때 거의 99% 지는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계약을 더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분들한테 더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여론이 모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없어지는 건 이 공간을 이용하고 애정하는 분들이 원하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배민지** (카페쓸 대표)

“공공의 공간이 상업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곳이 아니면 이들이 갈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이 없어진다는 게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계약을 짧게 해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힘을 다 빼고, 뭔가 연대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상황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 **이미혜**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장점을 살려서 현대적인 설비와 맞물려서 같이 발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건 반영되지 않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봐서 아까 탐조 활동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네요.” | **박비나**

“사실 어떤 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어떤 공원이 커뮤니티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건 항상 제안서를 쓸 때 넣는 부분인데, 그 커뮤니티가 실제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됐던 날이었어요.”

| **박윤주**(청설모클럽)

“공부하다보면 공원을 큰 스케일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작은 공간 안에서도 그게 사람이든 새든 활발한 활동이나 삶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 **윤혜린**(청설모클럽)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지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던 풍경을 망원경을 통해, 혹은 찾아보고 싶었던 장면을 그리며 장소를 방문하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인다. 탐조 활동의 매력은 새를 관찰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을 관찰하며 다양한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도 망원경을 통해, 그리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더라도 각자의 기억을 통해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글과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현장을 방문하면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누구라도 서울혁신파크 곳곳을 걸으며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공간과 혁신파크 안에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들, 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지키는 이의 고민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의 걸음과 시선으로 발견한 서울혁신파크의 풍경과 기억, 기록을 공유해주길 바란다. 당신의 보이지 않던 소리를 어디선가 만나기를 기대하며.



서울혁신파크 버드나무에서 발견한 쇠박새 (사진제공 : 나영)

당신의 파크는 어디입니까

서울혁신파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2012년 처음 입주했을 때 중앙 공원에 큰 벚꽃나무가 있었어요. 혁신파크 정문에 들어오면 그 벚나무가 맞이해주는 것 같은 느낌? 봄에 벚꽃 피면 그곳을 거닐고 점심도 나와서 먹고 그랬는데, 2015년인가 2016년에 그 나무가 베어졌죠. | **전민주**

피아노의숲. 일할 때는 청년청도 좋았어요. 그냥 돌아다니기에 좋고 건물이 예쁘고 옥상까지 갈 수도 있었고, 화분을 키우기도 했어요. 옥상이 좋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접근성이 어렵긴 했죠. 그래도 영화 찍는 친구들이 있어서 촬영 같은 걸 해볼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 **유선**

정문 입구에서 보던 북한산의 모습, 파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한눈에 보여서 늘 혁신파크에 들어설때면 새로운 기분이 들었던거 같아요. 마지막에 파크를 정리하고 나올 때도 저게 안 보이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지금도 파크를 떠올리면 그런 게 너무 아쉽네요. | **한선경**

예술동 뒷편으로 난 산책길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난 후에 팀원들은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할 때 저는 오늘은 안 먹겠다고 하고 그 길을 혼자 산책하면서 풀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의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 **이자민**

혼자 갈 때는 옥상이었고, 같이 갈 때는 우체국 건물에 있는, 목련이 있는 그곳이 생각나요. 3월 되면 거기에 목련꽃이 제일 먼저 피요. 그러면 진짜 누군가 만날 때도 거기서 보자. 목련 보러 가자. | **조아라**

메인 행사장으로 쓰인 다목적홀. 거기 의자를 양쪽으로 치우면 강당처럼 되고, 의자를 합치면 컨퍼런스룸처럼 되잖아요. 그곳에서 다양한 컨퍼런스나 지역 발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했어요. 아야프 마지막 날 DJ 불러서 무대 설치하고 댄스도 하고... 말 그대로 진짜 다목적홀이었죠.

| **이명희**

친구들이 맨날 청년청에서 밤새고, 피아노숲에 돛자리 깔아놓고 누워있고, 대학교 캠퍼스 같았어요. 나무도 크고 분위기 너무 좋고 은평구에 이런 곳이 있구나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어요. | **나영**

피아노숲을 시작으로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운동장, 혁신광장이라는 간판이 달린 드넓은 장소가 떠올라요. 그리고 서울기록원과 함께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 퍼스가 개관했는데 기대도 되고 가장 좋아했어요.

| 임순영

서울기록원을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상 생활을 많이 보내서 가족들과 이곳에 와서 누렸던 추억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여기에 어린이집 단체 학생들이 와서 행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산책도 자주 했어요. | 박비나

청년허브 때도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지만, 저는 카페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게 좋아요.

| 배민지

한평책방에서 자기네 북페어도 하면서 장터를 여는데 분위기도 좋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 박미정

서울혁신파크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일은?

심하게 폭우가 왔을 때 비가 정말 많이 섰어요. 재난 수준으로요. 물이 거의 폭포처럼 벽에서, 천장에서 섰는데, 그 물이 거의 이만큼 잘박잘박 바닥에 찼어요. 계속 물이 들어와서 직원은 다 나와 있었고 저희도 퇴근을 못했어요. 비오면 계속 생각나요. 항상 바게스가 있었죠. | 유선

예술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입주 작가분들이 힘들셨을 거예요. 출거나 진짜 더운 날에는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혁신파크 내에서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라 그랬거든요. 다행히도 미래청 곳곳에 쉼터들과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1층에 누워 있는 공간도 아시죠? 약간 낮게 동굴처럼 뚫려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낮잠자고 만화책도 읽고 그랬어요.

| 이자민

극장동에서 영화 상영을 하면, 일종의 장애인석을 일부러 한가운데다 두고 그랬거든요. 보통 휠체어석을 뒤에 빼는데 오히려 이걸 가운데 두기도 하고, 왜냐하면 의자가 특별히 없으니까 우리끼리 배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런 시도들을 좀 해보기는 확실히 좋았던 공간이었어요. | 강경환

복날이 오면 채식으로 만든 육계장, 채계장을 나누어 먹는 걸 많이 했어요. 여름이 오면 수박을 나누는 자리도 있고. 그렇게 나누는 자리들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행사했던 사람이어서 다 같이 모여있던 기억이 엄청나죠. |한신경

저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친구들 3명에서 혁신파크 공유텃밭을 신청했었어요. 거기 텃밭을 경작하는 농부들한테 '기후농부'라는 이름 붙여서 땅을 살리는 기후농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농업 파머컬처를 하는 공유텃밭이었던 거죠. 저의 첫 농사였고요. 상추를 땅에 처음 심을 때 어마어마한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나영

2021년 11월에 서울마을센터 위탁운업을 종료하면서 10년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법인 이사님들과, 센터 직원들과 함께 혁신파크 구석구석을 산책했어요.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웠던 해였는데 그냥 머리에 담아둬야지 해서 사진을 남기지는 않았죠. 그 뒤로 서울혁신파크를 떠날때 의례처럼 다 둘러보고 산책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전민주

목공동에서 가끔 목공 클래스가 열렸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목공 클래스 또 언제 여냐고 물어보면서 저녁에 일 마치고 동료랑 서랍 만들고 그랬어요. 뭘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조아라

아야프 행사 중에 오드리 탕(Audrey Tang)이 온 적이 있어요. 그 분을 섭외할때 조건이 무조건 연수동에서 숙박하면서 청년 연구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거든요.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호텔에서 숙박할수도 있었을텐데, 북한산 뷰와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리모델링한 연수동이 풍기는 공간 분위기가 사회혁신가들을 섭외할 때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죠.

|이명희

친구들이 미래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처음에 어디서 만날지 물어보니 '혁신파크에서 만나' 했어요. 제가 '장난 치지 마. 혁신이 말이 돼?' 혁신파크라는 네이밍이 낯설었죠. 처음엔 어른 버전의 하자센터인가 싶었어요. 비전화공방부터 우연히 스킷 본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겹쳐 이곳에 와보고 싶었어요. |이미혜

2017년 비건페스티벌에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서울혁신파크는 매일밤 친구의 농구 연습 장소이기도 했어요.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2019년쯤 다큐를 밖에서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그 분위기와 다큐가 전달하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연빈

비건 페스티벌때 친구들과끼리 공놀이 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페스티벌하면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고 다리 아파서 앉을 곳 찾기 마련인데, 여기선 참여도 하고 넓은 공터에서 공놀이를 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주연

사회혁신을 공부하면서 서울혁신파크 행사마다 와서 극장동도 둘러보고, 맛동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초기 비전 화카페가 되게 신선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치들을 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가 여름쯤이었는데 나온 음료가 엄청 시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돈을 내며 계속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지향은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늘 과제이자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임순영

도시농업 할 때 국제도시농업 컨퍼런스를 파크 마당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과 비건 관련된 마켓을 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여기는 이런 거 해야지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았던 두 번의 기억이 있어요. |구은경

Timeline

서울혁신파크의 역사

2012 - 2024

2012 - 2024

서울혁신파크의 역사

2012

- 9.11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식품의약부안전처 8동
생물생명공학실험동 3층
전민주 | 질병관리본부에서 희생된
생명체를 기리는 제를 지내다
- 3.9 ● 서울시립대 유치를 위한
은평추진위원회 발족
- 12.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3

- 2.4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관
- 4.11 ● 식품의약부안전처 8동
생물생명공학실험동 1층
청년일자리허브 개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조아라 | '청년참' 참여
한선경 | '삶의 재구성' 컨퍼런스 협력
-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공식 발표

2014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입주
- 4.16 ● 세월호 참사
- 7.14 ● 박원순 제36대 서울시장 취임

2015

- 서울혁신센터 개소
- 5.29 ● 서울혁신파크 전대미문 프로젝트
- 혁신가 1,000명 모집 공고
- 6.23 ● 서울혁신파크 첫번째 입주단체 선정
한선경 | 청년허브 '미담이사무실' 입주
- 6.26 ● 서울혁신파크 론칭이벤트 개최
- 7.30 ●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9.1 ● 청년청 개관
- 9.3 - 9.6 ● 에이컴퍼니 <브리즈아트페어> 개최
- 9.10 ● 2015 서울마을박람회
제8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 12.6 ● 서울혁신파크 공공기관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

2016

- 5.25 제1회 비건채식문화 축제 개최
나영 | 생애 최초 비건페스티벌의 기억
- 8.28 제작동, 목공동, 재생동, 전시동 (SeMA참고), 예술동 오픈
- 7.12 서울혁신파크 자치회 총회
- 12.16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12.27 구은경, 박미정, 허나운
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젠더 교육
'혁신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최

2017

- 3.10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 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 5.17 여성혐오범죄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 5.21 제3회 비건페스티벌 개최
나영 | 비건페스티벌 셀러로 참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미래청으로 이주

2018

- 2월 배민지 | 청년허브 '미달이사무실' 입주
- 3월 이자민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매니저로 미래청 입주
- 3.27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개관
- 공유동 6층
-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시작
- 4.1 혁신플랫폼협동조합 서울혁신센터 운영수탁 시작(2020.12.31 수탁 종료)
- 4월 상상청, 연수동, 공유동, 연결동 오픈
- 서울혁신파크 1단지 개관전
<혁신의 연금술> 개최
- 한선경 | 상상청 '글로벌코워킹존' 입주
- 5월 청년허브 1층 창문카페 운영주체 모집
유선 | 창문카페별골 활동시작
- 11.1 - 11.3 2018 연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개최
한선경 | 연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총괄
- 11.17 비전화공방의 '비전화카페' 오픈

2019

- 4월
조아라 | 청년허브 입사
'N개의 공론장' 담당
- 5.15
서울기록원 개관
- 9.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유죄판결 확정
- 12.12-12.14
2019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개최
- 한선경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서울 총괄

2020

- 1월
청년허브, 서울연구원, 청년재단 주관
아시아엑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AYARF) 개최
- 이명희
AYARF 총괄
- 5월
청년청, 마지막 입주단체 모집
- 나영, 배민지 | 청년청 입주
- 7.9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2021

- 11월
(사)마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종료
- 전민주 | 퇴사 전 함께 파크 산책
- 배민지 | 카페솔 운영 시작

2022

- 2월
조아라 | 청년허브 퇴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 2.24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 4.22
- 윤석열 대통령 취임
- 5. 10
- 이태원 참사
- 10.29
- 10.30
제9회 비건페스티벌 개최
- 12월
나영, 배민지 | 청년청 퇴거
-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직주락융복합도시' 조성계획 발표
- 12.19

2023

- 4월
배민지 | 혁신파크 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시작
- 5.21
제10회 비건페스티벌 개최
- 5. 5
WHO 코로나 펜데믹 종식 선언
- 5.25
전환마을은평 '농사짓는 여성들' 개최
- 6월
(사)마을 회원 공원 산책
전세사기 대란 시작
- 7.1
안녕!?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집담회 개최
- 7.20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 활동시작
- 8.1 - 8. 8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종료
- 8. 2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10.7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 시작
- 11.25
서울혁신파크의 공공성을 지키기위한 시민행진
- 12.31
서울혁신파크 공식적인 운영 종료

2024

- 3.24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서울공공성 페스티벌' 개최
- 5.26
카페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을 추지' 포에버파티 개최
- 6월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미래청 입주
카페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춤을 추지' Vol.2 개최
- 6.29
서울주택도시공사, '혁신파크 건축물 철거 및 임시 휴게공간 조성' 계획 발표 - 33개동 중 23개동 8월부터 철거공사 착공 예정
페이퍼백아카이브, 서울혁신파크 생태탐방 진행
- 7.28 - 7.29
썸, 포에버파티 개최
- 9.6 - 9.27
페이퍼백아카이브, 서울혁신파크아카이브전 '신公園, 혁신파크의 기억' 개최

서울혁신파크의 기억

Memories of Seoul Innovation Park

인터뷰기록집

편집 허나운
디자인 박나리
발행일 2024년 9월 6일
펴낸곳 페이퍼백 아카이브
등록 2018년 12월 7일 제2018-00089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71 5층
홈페이지 www.archivew.info
이메일 paperbagc@gmail.com
ISBN 979-11-968911-4-5 03300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2012-2024
사회혁신파크아카이브

www.memorycity.kr

